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Incheon Art Platform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코리아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전시예술감독 이태호 Artistic Director LEE Taeho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갈라 포라스-킴 Gala Porras-Kim
글렌 모리, 줄리 모리 Glenn Morey, Julie Morey
김수자 Kimsooja
김희주 KIM Heejoo
다프네 난 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nt
민영순 MIN Yong Soon
박유아 PARK Yooah
박이소 BAHC Yiso
백담준 Nam June Paik
윤진미 YOON Jin-me
이가경 LEE Kakyoung
이영주 LEE Young Joo
이현희 LEE Hyun-Hee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최성호 CHOI Sung Ho
케이트 허스 러 kate-hers RHEE
하진남 HA Jhonnam

오프닝 퍼포먼스 Opening Performance
하진남 HA Jhonnam
(일본에서 태어난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Cut My Hair, Born in Japan
2022.09.30.(금), 16:00, 전시장 1 (Galler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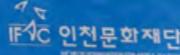
북 콘서트 Book Concert
(A Ricepaper Airplane)
하와이 이민 3세 영문학자 Gary Pak의 소설
A novel by Gary Pak, a third-generation
Korean-American in Hawaii and scholar
of English literature
2022.10.08.(토), 15:00, 공연장 (Theatre)

작가와의 대화 Artist Talk
최성호 작가 외 CHOI Sung Ho and others
2022.10.22.(토), 15:00, 전시장 1 (Gallery 1)

www.inartplatform.kr

2022.09.30. ^{FRI} - 11.27. ^{SUN}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 중앙광장 IAP Gallery 1, IAP Square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11:00 - 18:00 Closed on Mondays / Open 11:00 - 18:00



코리아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Incheon Art Platform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Emigration

코리아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전시예술감독 이태호 Artistic Director LEE Taeho



코리아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코리아 디아스포라 - 한지로 접은 비행기
2022. 9. 30. - 11. 27.

전시예술감독 이태호
큐레이터 이영리
진행보조 최승희, 김유림

음향, 영상 (주)애드텍
작품운송 (주)마이컴퍼니글로벌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현대기획
사진 최철림
번역 전효경, 아트컨셉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문화재단-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손동혁
인천아트플랫폼 팀장 최기현

© 인천아트플랫폼, 2022

수록된 글과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pecial Exhibition by Incheon Art Platform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Emigration**

Korean Diaspora-Ricepaper Airplane
September 30 - November 27, 2022

Artistic Director LEE Taeho
Curator LEE Young-ri
Curatorial Intern CHOI Seung Hee, KIM Yulim

AV Equipment AD Tech
Transportation MY COMPANY Global co., Ltd.
Publicity Materials H.D Plan
Photography CHOI Chul Lim
Translation Hyo Gyoung Jeon, Art Concept

Hosted by Incheon Metropolitan City
Organiz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Incheon Art Platform(IFAC-IAP)
IFAC, President LEE Jong Gu
IFAC, Division of Cultural Space,
Managing Director SON Donghyek
IAP, Team Manager CHOI Kihyun

© Incheon Art Platform, 2022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right
holders and Incheon Art Platform.

코리아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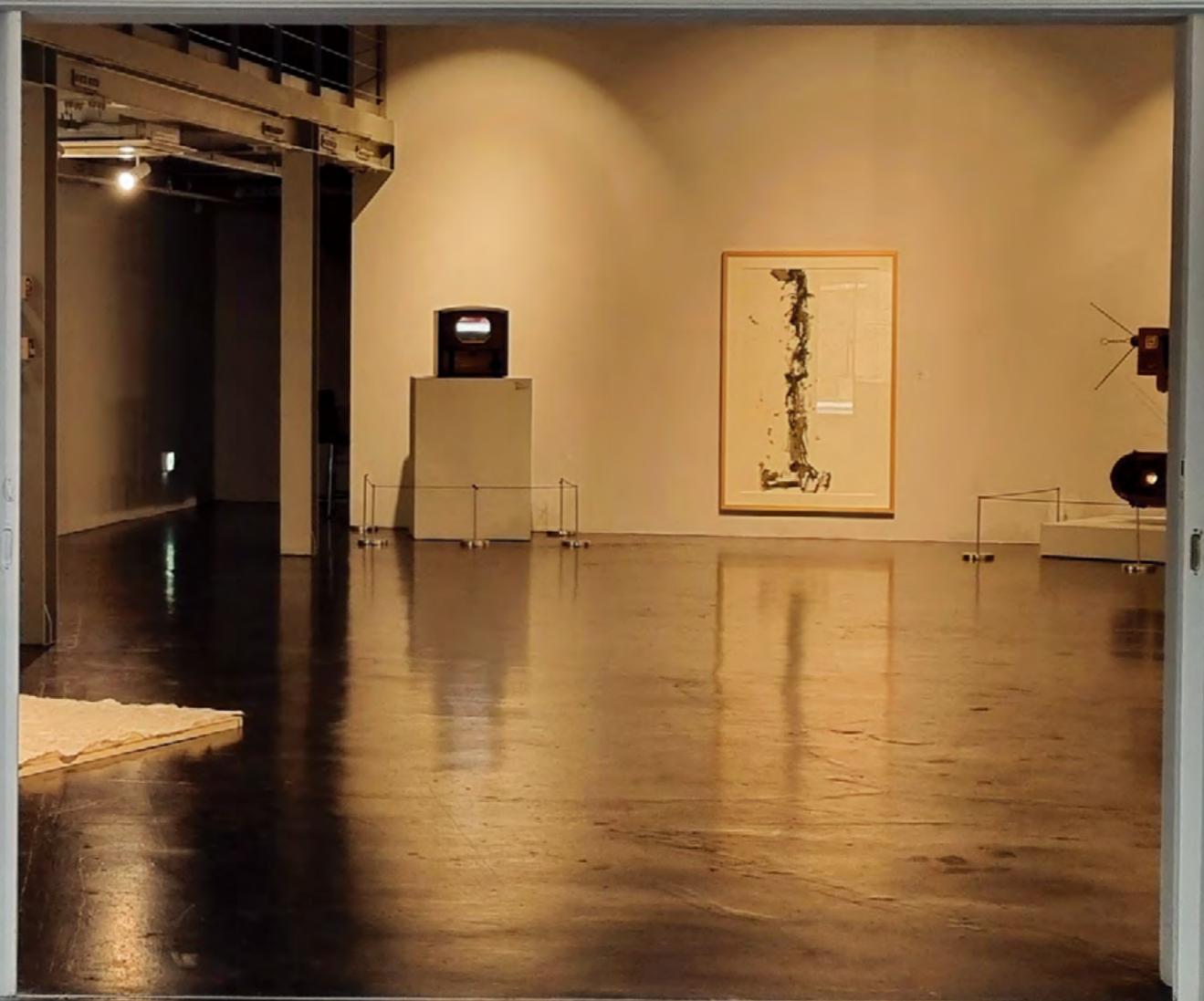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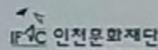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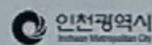
2022.09.30^{FRI} - 11.27^{SUN}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 중앙광장 IAP Gallery 1, IAP Square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11:00 - 18:00 Closed on Mondays / Open 11:00 - 18:00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Incheon Art Platform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Emigration

코리아 디아스포라 한지로 접은 비행기
Korean Diaspora - Ricepaper Airplane

2022. 09. 30. - 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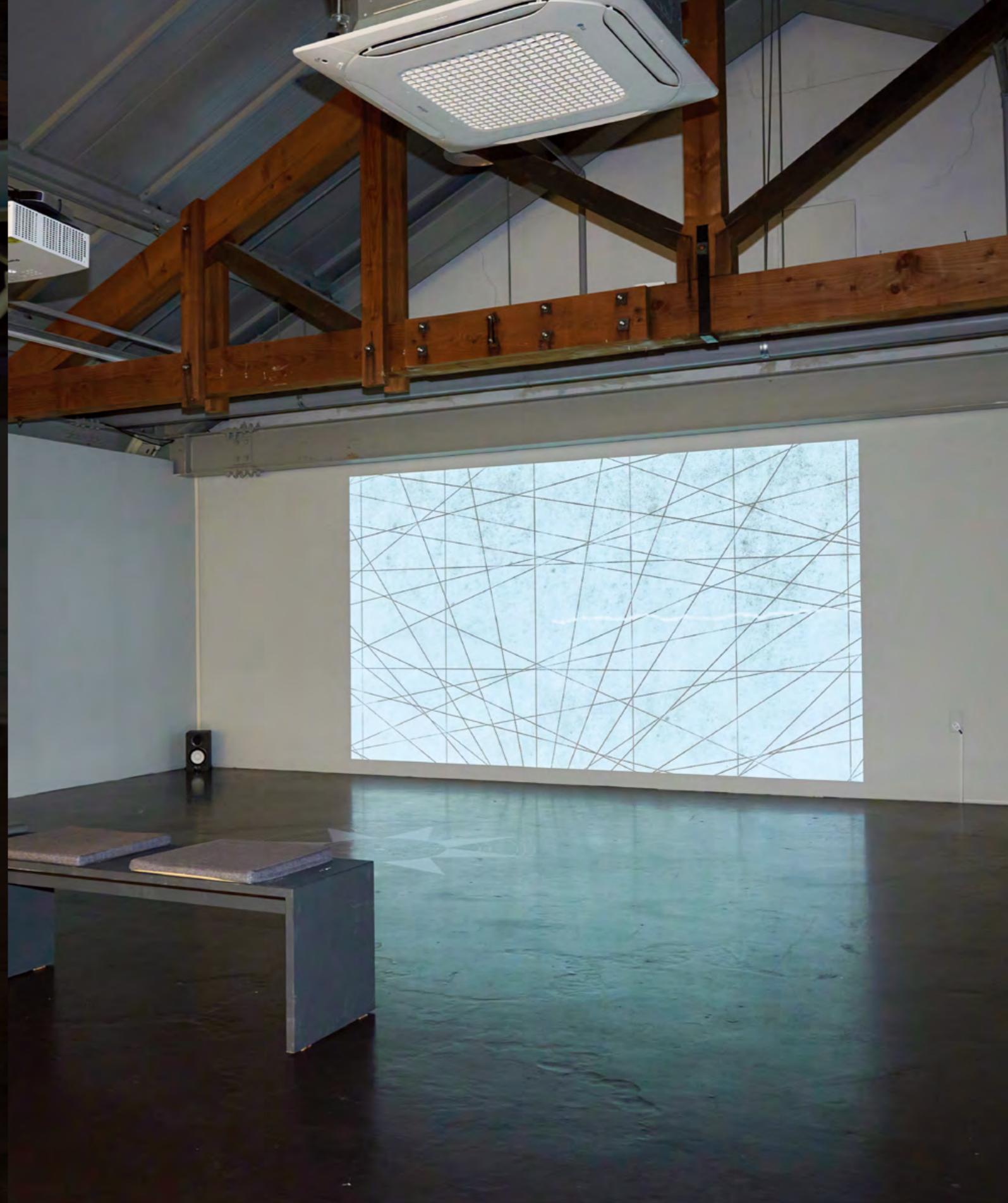




豈卿真以為書耶。非書而畫耳。









그다음 주에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었어요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Incheon Art Platform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코리아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www.inartplatform.kr

2022.09.30. - 11.27.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 중앙광장 IAP Gallery 1, IAP Square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11:00 - 18:00 Closed on Mondays / Open 11:00 - 18:00



우리는 행복을 위해





이정우
LEE Jungwoo
승선하지 않았다
Not on Board

22. 30.

마도 오사 에서 마

차례 contents

- 4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of Exhibition
- 25 차례 Contents
- 27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이태호 LEE Taeho
- 32 참여작가 인사말 Opening Speech
다프네 난 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nt
- 36 오프닝 퍼포먼스 Opening Performance
하전남 HA Jhonnam
- 40 디아스포라, 나를 마주하는 경로들 - 정현
The Diaspora: The Routes Facing Me, JUNG Hyun
- 45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 46 갈라 포라스-김 Gala Porras-Kim
- 50 글렌 모리, 줄리 모리 Glenn Morey, Julie Morey
- 54 김수자 Kimsooja
- 58 김희주 KIM Heejoo
- 62 다프네 난 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nt
- 66 민영순 MIN Yong Soon
- 70 박유아 PARK Yooah
- 74 박이소 BAHC Yiso
- 78 백남준 Nam June Paik
- 82 윤진미 YOON Jin-me
- 86 이가경 LEE Kakyoung
- 90 이영주 LEE Young Joo
- 94 이현희 LEE Hyun-Hee
- 98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 102 최성호 CHOI Sung Ho
- 106 케이트 허스 리 kate-hers RHEE
- 110 하전남 HA Jhonnam
- 114 북 콘서트 Book Concert(Gary Pak)
- 117 작가와의 대화 Artist Talk
(LEE Hyun-Hee, CHOI Sung Ho, HA Jhonnam)
- 121 작가이력 Artists' Biography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이태호 (전시예술감독)

LEE Taeho (Artistic Director)

세계의 한지로 접은 비행기들

인천은 한반도와 세계를 잇는 관문이다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한민족은 그 어떤 민족 못지않게 활발히 반도의 경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가 세계로 나가고 세계가 우리로 들어올 때 통과해야 하는 관문, 인천은 그 관문을 품고 있다. 과거에는 항만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공항으로 인천시는 한반도와 세계를 역동적으로 잇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문화의 확산

연구자들은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추동하는 원인으로 기근과 전쟁, 사회적 혼란, 정부권력에 의한 강제 이주 등 타율적 동기를 주로 거론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연결돼 세계 곳곳의 뉴스와 문화 등이 실시간 공유되고, 글로벌기업 활동과 문화의 확산 등에 의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취업이나 취향, 활동무대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이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과거에는 타율적 동기에 의한 이산과 이주가 주였다면, 밀레니엄 이후에는 눈에 띄게 자발적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즉 개인과 집단의 자유의지에 의한 디아스포라가 진행되고 있다.

The Ricepaper Airplanes in the World

Incheon: The Gateway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Koreans have sprea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Incheon is the gateway for this, as Koreans leave and enter the country through this city. As a past port city, and current home to Korea's major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s history as Korea's international hub makes it the perfect setting for this exhibition.

Spread of the Internet and Culture

Historically, diasporas formed as a result of famine, war, social turmoil or forced migration by government power. But with the rise of the internet and especially social media, the world is more interconnected than ever.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voluntary emigration is on the rise due to new opportunities in employment and education, as well as personal autonomy brought on by the wealth of information and opportunity right at your fingertips.

The Korean Diaspora also reflects this trend. In the past, migration and separation were mainly driven by force, but since the millennium, voluntary emigration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미술전시회

한국의 이민사는 공식적으로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을 떠나 하와이로 향한 121명을 첫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첫 이민 이후 한국의 해외 이주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재외동포는 750만을 헤아린다. 인천광역시는 이민 120주년의 기념과 함께, 날로 확산돼온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학술과 예술 분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 «코리안 디아스포라-한지로 접은 비행기»(2022. 9. 30 - 11. 27)도 그 기념 행사의 한 부분이다. 이 전시회는 세계에 퍼져 각국에서 활동해온 한민족 혈통의 시각예술가 18인의 작품을 초청해 한자 리에 모은 매우 특별한 미술전시회라 할 수 있다.

전시회 《코리안 디아스포라-한지로 접은 비행기》

최근 들어 세계 여러나라의 미술 현장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이는 한국계 작가들이 드물지 않다. 이번 전시 «코리안 디아스포라-한지로 접은 비행기»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등 모두 8개국에서 의미있는 활동으로 주목받는 작가 18인의 작품을 초대한다. 초대된 작품의 작가들은 모두 한민족의 혈통을 지니고 있지만, 각기 다른 국적만큼이나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각각 다르다. 초대작가 중에는 자발적 의지로 활동무대를 외국으로 정한 작가도 있는가 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주민이 된 경우도 있다. 또한 이민 2세로서 이미 한국어를 잊은 작가도 있고, 이민 3세로서 그저 한국을 조부모의 나라로만 기억 하는 작가도 있다.

작가들이 구사하는 작품의 형식도 다양하다. 회화, 사진, 설치, 영상, 애니메이션, 조각, 드로잉 등 미술의 표현 형식 거의 모두를 망라한다. 작품이 제작된 시기는 백남준의 <나는 이 곡을 1954년 도쿄에서 썼다>처럼 1990년대의 작품부터 이가경의 애니메이션 <오가는 사람들>처럼 2022년 9월에 완성한 작품까지 30여 년에 걸쳐 있다. 이처럼 전시된 작품들을 모두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이란 이름으로 묶을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동시대 미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함, 즉 모든 작품들이 제각각의 다른 양식과 내용과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다면 작가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인지 놀랍게도 이들 중 많은 작품에 그 떠나온 땅에 대한 감정이나 자취가 담겨 있음을 본다.

기억과 감정들, 혹은 '정체성'의 탐구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지만, 이를테면 작품들에서 모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 기억(백남준, 케이트 허스 리 등), 정치적/사회적 우려와 연민(최성호, 민영순, 박유아 등), 개인 혹은 집단의 슬픔과 그리움(진미 윤, 제인 진 카이젠, 하전남, 이현희 등), 역사에 대한 분노와 고발(글렌 모리, 줄리 모리, 이가경, 김희주 등) 등의 정서가 표출된다. 본래 미술이라는 장르가 여러 예술 중에서도 작가의 '정체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거나 심지어 뗄 수 없는 '한 몸'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전시에서도 작품의 그런 면이 확인되고 있다.

has been increasing. In short, much of the modern Korean Diaspora was created by individual and collective free will.

An Art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Emigration

Korea's first emigration case was recorded on December 22, 1902 when 121 people left Jemulpo Port for Hawaii. Since then, Korea's international migration has exploded with 7.5 million Koreans abroad as of 2022, just 120 years later. To commemorate the 120th anniversary, the city of Incheon will hold various art exhibitions and academic events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and significance of the Korean diaspora.

Korean Diaspora- Ricepaper Airplane

The Korean Diaspora-Ricepaper Airplane exhibition will be held at Incheon Art Platform from September 30, 2022 to November 27, 2022. This special exhibition will feature works by 18 visual artists of Korean descent from all around the world who are proactive in their own countries. *Korean Diaspora-Ricepaper Airplane* invited 18 artists from eight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Germany, France, Denmark,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se 18 artists are recognized for their compelling practices in their media. While all the artists are of Korean descent, their contents and forms of the works are as distinct as their differing nationalities. Some of these artists voluntarily chose to move and work in a foreign country. Others did not. Some of these artists are second-generation immigrants and have forgotten the Korean language; others are third-generation immigrants who only remember Korea as the country of their grandparents.

The forms through which the artists' ideas manifest are also diverse. The works traverse across all media of art, including painting, photography, installations, video, animation, sculpture, and drawing. They span over 30 years, from Nam June Paik's *I wrote it in Tokyo in 1954* from the 1990s to Kakyoun Lee's animation *Passersby*, completed in September 2022. All of these exhibited works can be classified as Contemporary Art, as they demonstrate diversity, different styles, contents, and voices.

Despite the diversity in media and form, these artists are all linked by their Korean heritage. In many of the works, this link may explain the common sentiment that evokes the land that they have left.

Memory and Emotions, and the Search for 'Identity'

In a broad sense, the exhibited works display a certain cultural memory of their home country (Nam June Paik, kate-hers RHEE). Other works feature political/social concerns, compassion (Sung Ho Choi, Yong Soon Min, Yooah Park, et al.), personal or collective sorrows and longing (Jin-me Yoon, Jane Jin Kaisen, Jhonnam Ha, Hyun-Hee Lee, et al.). There is also anger and accusations against history (Glenn and Julie Morey, Kakyoun Lee, Heejoo Kim et al). The genre of art is related to or even difficult to separate from the artist's 'identity'.

대부분 인류학적인 관심과 함께 자신을 서유럽의 백인이 아닌, 이른바 '타자(others)' 혹은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인식하면서 “나는 누구이며, 한국인은 누구인가?”와 같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갈라 포라스, 다프네 난 르 세르장, 김수자, 박이소, 이영주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대된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초대작가 18인 중 4인의 작가가 유아기에 해외로 입양되어 미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에서 성장한 작가라는 사실이다. '해외입양'은 한국으로서는 부끄러운 과거이자 감추고 싶은 기록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폭주하는 기차처럼 진행된 남한 사회의 산업화와 경제제일주의가 낳은 어두운 그늘이다. 20만이 넘는 '해외입양'을 이제 우리는 한국만의 독특한 디아스포라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그 아픈 과거를 꺼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글렌 모리와 줄리 모리의 영상작품 <우리가 잃은 것들 Given Away>을 보면서 통렬한 아픔과 함께 확인한다. 모리부부의 작품은 작가들 자신이 한국의 해외입양아로 성장했고, 그 바탕 위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세계에 흩어져있는 1백 명의 입양인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기록한 영상작업이기 때문이다.

동시대미술 속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전시 제목 '한지로 접은 비행기'는 하와이 이민 3세인 게리 팩(Gary Pak)의 영어소설 'A Ricepaper Airplane'의 제목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 '한지로 접은 비행기'는 한국인의 얼굴과 혈통을 지닌 채 해외로 이주해 간 해외동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해외동포는 이미 떠난 비행기다. 이들은 낯선 땅에 발을 디뎠고, 거기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견디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미술인으로 성장한 작가들, 그 적은 일부만이 이번 전시 <코리안 디아스포라-한지로 접은 비행기>에 초대됐다. 적은 숫자여서 아쉽긴 하지만, 이른바 모국(motherland)을 떠났던 작가들의 시각에 스텝작품이 모국으로 돌아와 전시회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전시회 <코리안 디아스포라-한지로 접은 비행기>는 우선 우리에게 동시대미술의 동향과 그 큰 흐름을 세계적 차원에서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그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과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국외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시회의 여러 작품들 앞에서 연이어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박이소의 작품 <우리는 행복해요>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 채,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물을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각각의 작품들 앞에서 '한국인은 누구인가?' '고통은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는가?' '남한과 북한은 왜 갈라졌나?' 등 질문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도 있다. 그렇다. 좋은 예술작품은 언제나 우리를 질문하게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예술의 힘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다. 의미있는 '질문'과 함께 그것은 기지개를 켜며 날기를 시작한다.

Many artists strive to confirm their own existence in the world. Most artists seem to recognize themselves from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identifying themselves as an 'other' or as a minority among westerners, asking questions about their own 'identity,' who they are and who 'Koreans' are (Gala Porras-Kim, Daphné Nan Le Sergent, Kimsooja, Yiso Bahc, Young Joo Lee, et al).

Notably, 4 of our 18 artists were adopted out of Korea as children, and grew up in the US, France, Germany, and Denmark. Since the Korean War in the 1950s, and through the 1980s, South Korea underwent incredibl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at period, Korea became known as 'the land of the orphans' due to the number of children adopted out across the world. Foreign adoption is a shameful part of Korea's past that Korea tries to conceal. We now have no choice but to embrace the painful past, recognizing the more than 200,000 'overseas adoptees' as part of Korea's unique diaspora.

Glenn and Julie Morey's video work Given Away is charged with an acute sense of pain. Their work features interviews of 100 Korean adoptees throughout the world, seen through the eyes of the Morey couple, who grew up as Korean adoptees living in a foreign country themselves.

The Korean Diaspora in Contemporary Art

The exhibition title '*Ricepaper Airplane*' was inspired by the novel *A Ricepaper Airplane* by Gary Pak, a third-generation Korean-American in Hawaii. An airplane that has already taken off serves as a metaphor for Koreans abroad, whether by self-will, or the will of others. They set foot on a foreign and unfamiliar land, where they fight to survive. Some grew up as artists, and a small number of them were invited to the exhibition *Korean Diaspora-Ricepaper Airplane*. Though few in number, it is meaningful since these artists have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their motherland and to unite under the name of this exhibition.

To the public, *Korean Diaspora-Ricepaper Airplane* showcases current trends in contemporary art at a global level. Concurrently, these works will shed new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 from an outsider's objective perspective.

We may also find ourselves questioning our own identities in light of the various works in the exhibition. For example, Yiso Bahc's work *We Are Happy* may grab you for a while, and make us ask ourselves if we are indeed happy. On the other hand, we may ask a chain of questions such as: "What does it mean to be a Korean?", "How can one ease this pain?" and "Why did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ns divide?" After all, the purpose of art is to make one think and question.

As we know, the power of art lies not in the answers but in the questions. With meaningful questions, this exhibition will soar and fly.

Opening Speech

참여작가 인사말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 프랑스로 입양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시각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Daphné Nan Le Sergent was born in Korea but adopted soon in France. Now she is living and working as a visual artist in Paris, France.



이중의 디아스포라

L'Adoption : le double diaspora

다프네 난 르 세르장

《코리안 디아스포라 - 한지로 접은 비행기》 전시에 초청해 주신 이태호 교수님과 인천아트플랫폼 이영리 큐레이터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개 감사인사로 시작하는 소감들은 따분하기 마련이지요. 만약 참기 힘들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각별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까닭은 한국입양인들이 포함된 디아스포라, 이주에 관한 현대미술전을 저는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로 입양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입양인들에게 무리에 융화될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입양된 사회에 100% 동화되기를 바랍니다.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면 법석을 떨지 말 것을 요구받습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시절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플뢰르 펠랭이나 유명한 쉐프 피에르 상 보이에도 한국입양인이지만 이들은 정체성보다는 자신의 역량으로 더욱 돋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섹세스 스토리, 성공 신화”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한국 얼굴을 가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저요, 저는 요 옆동네에서 왔고요, 그냥 뺑사러 온거거든요. 이 한심한 인간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냥 한국이주민일지도 모릅니다. 정부 고위직에 있던, 직업적으로 촉망받는 사람이건, 일반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전시 <한지로 접은 비행기>가 한국입양인들의 예술적 성취에 부여한 자리, 그 진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미운

Daphné Nan Le Sergent

Tout d'abord je tenais à remercier vivement M. Taeho Lee pour son invitation dans l'exposition « Korean diaspora, Ricepaper Airplane » et Mme. Young-ri Lee pour son invitation à Incheon Art Platform.

D'habitude, un discours qui débute par des remerciements s'annonce totalement soporifique. Et vous avez le droit de lever la main si vous n'en pouvez plus.

Ces remerciements sont importants car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ois une exposition d'art contemporain sur la diaspora y inclure des adoptés coréens. Normalement, et je parle en état de cause - puisque je suis née en Corée et j'ai été adoptée en France - nous, les adoptés, on est invité à se fondre dans la masse, à s'intégrer à 100% dans la société d'accueil, et à ne pas faire de vague, si ce n'est celle du succès.

En France, Fleur Pellerin, ancienne ministre de la culture sous la présidence de François Hollande ou Pierre Sang Boyer, un chef cuisinier réputé, sont des coréens adoptés qui font valoir leur travail plus que leur identité. Cette « success story » pourrait s'arrêter là - et mon discours également - sans une question qui revient sans cesse. « De quelle origine êtes-vous ? D'où venez-vous? », nous demande-t-on en permanence face à notre visage coréen. A ceux-là, j'ai toujours envie de répondre : « Je viens du quartier d'à côté et je suis juste là pour acheter du pain, sombre crétin. »

Dans le regard des autres, nous sommes et resterons pareil aux coréens de la diaspora. Aussi ministérielle que soit notre carrière, nous serons toujours considérés par l'opinion publique comme venant de la lointaine Asie.

Vous l'aurez compris, la place que cette exposition

오리새끼가 아니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라는 것이 과연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국이주민은 고국에 돌아오면 그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입양인은 한국에 오면 모든 걸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하고 친구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입양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주민이 무언가를 되찾으려한다면, 한국입양인은 그 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한국이주민이 유럽에서 자신이 망명자인 것처럼 느낀다면, 한국입양인은 한국에서 자신이 망명자인 것처럼 느낍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지만 한편 아시아인의 외모에 맞게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기억 속에서 찾아봅니다. 이 나라에 자신을 연결시켜 줄 추억, 소리, 맛, 이미지들요. 일상이 자기 안에서 어떤 울림을 갖는지 귀기울여 듣고, 희미해지는 과거를 주의깊게 살펴봅니다.. 아시아인으로서의 자아가 더 잘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서양의 자아를 떠나보내야 할 지 고민합니다. 즉, 한국입양인들이 겪은 이런 형태의 이주는 어디로 이끄는지 모르는 내면의 여행입니다.

공간은 단지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몸 속에, 문화적 조건에 순응하는 바로 이 몸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입양인은 새로운 길을 터 나아가야 하고, 서양의 자아라는 표면적인 층에서 더 깊이 들어가 감각적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남아 있는 흔적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흔적들은 너무나도 희미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상하고 발명하고,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영상 <내면의 인도를 향한 여행>은 이러한 탐색과 방향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영상 작품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던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와 유럽 항해사들의 이야기에 착안하였습니다. 그 시대 15세기에, 이 항해사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쪽 가다보면 언젠가 동쪽에 있는 인도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콜럼버스는 동쪽에 달기를 바라면서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자기가 인도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인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Ricepaper Airplane» accorde au travail artistique des adoptés coréens est une vraie reconnaissance. Enfin, nous faisons partie d'un monde. Enfin, nous sommes acceptés dans une communauté, sans en être les vilains petits canards.

Mais quel est ce monde au juste? Quand il revient au pays, le coréen de la diaspora espère retrouver intactes les sources de ses souvenirs. Quand il arrive en Corée, l'adopté a tout à construire, apprendre la langue, la culture, créer des liens affectifs forts avec des amis ou de la famille - une deuxième adoption en somme.

Ce qui fait que, si le coréen de la diaspora cherche à retrouver quelque chose, l'adopté coréen cherche à y trouver quelque chose. C'est là que commence son vrai voyage. Si le coréen de la diaspora s'est senti en exil en Europe ou aux Etats-Unis, le coréen adopté se sent en exil en Corée. Tout lui est étranger et pourtant si familier, si conforme à son corps asiatique. Dans sa mémoire, il cherche. Il cherche des souvenirs, des sons, des goûts, des images qui le rattacheraient à ce pays. Ou plutôt, il écoute comment la vie quotidienne résonne en lui et sonde un passé évanescent. Il se tient à l'affût, et apprend à se départir de son moi occidental pour mieux laisser surgir son moi asiatique. C'est à dire que cette forme de diaspora, cette diaspora vécue par les adoptés coréens, prend les allures d'un voyage intérieur, dont on ne sait jamais vraiment où il mène.

L'espace n'est pas seulement géographique mais enclavé dans le corps, dans le corps docile du conditionnement culturel. A l'adopté de s'y frayer un chemin, d'aller des couches superficielles de son moi occidental aux traces indélébiles, mais si fuyantes, de sa mémoire sensorielle.

Ces traces sont si ténues que finalement, il ne s'agit jamais de trouver mais d'imaginer, d'inventer, de se construire. La video <Voyages dans nos Indes intérieure> est un travail qui se nourrit de cette errance. Elle propose de suivre Christophe Collomb et les navigateurs européens à la recherche d'une nouvelle

이 영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서양적 측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서양의 자아를 떠나 감각적 기억 속 더 깊은 층으로 가게됩니다. 노래 하나가 이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뱅상 귀요라는 작곡가에게 의뢰하여 만든 것인데요, 칼리나 데 귀안이라는 곳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부르는 선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남부의 우마 라오라는 고장 출신의 인도 가수에게 그 지역 언어인 타밀어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인도인의 언어와 목소리로 부르는 아메리카인디언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이 미묘함을 관람객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목소리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꾸며낸 걸모습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이 목소리는 걸모습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목소리입니다. 프랑스에서 입양인들은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로 말할 때, 사람들은 '어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하고 깜짝 놀랍니다.

분절과 단절은 더 이상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route pour atteindre les Indes. A cette époque-là, au 15ème siècle, on prétend que la terre est ronde et qu'on peut arriver aux Indes en passant par l'Ouest. Ainsi, Collomb ira vers l'Ouest en espérant atteindre l'Est. Et quand il pose pied aux Amériques, il se croit arriver en Indes et pense avoir à faire à des Indiens.

Dans cette vidéo, on passe des couches occidentales du moi aux couches profondes de la mémoire sensorielle. Un chant accompagne ce voyage. Ce chant, a été composé sous mon invitation, par Vincent Guiot depuis une chanson amérindienne de la communauté kali'na des Guyanes. Il est interprété en langue tamoule par une chanteuse originaire de l'Inde du Sud, Uma Rao.

Un chant amérindien avec une voix indienne, donc, mais, si on n'en a pas été averti, on ne peut remarquer cette subtilité. Ce chant est la voix qui persiste derrière le visage, derrière le faux-semblant de l'apparence.

Il est la voix qui rétablit la vérité de la chair quand, en France, les adoptés s'expriment dans un français impeccable alors qu'on les croit d'origine étrangère. Il est cette voix surprenante parlant en anglais quand, en Corée, on les croit coréens, provoquant une stupeur un peu béate chez les interlocuteurs.

La fracture n'est déjà plus géopolitique mais bien dans le lien social.

Opening performance

하전남 HA Jhon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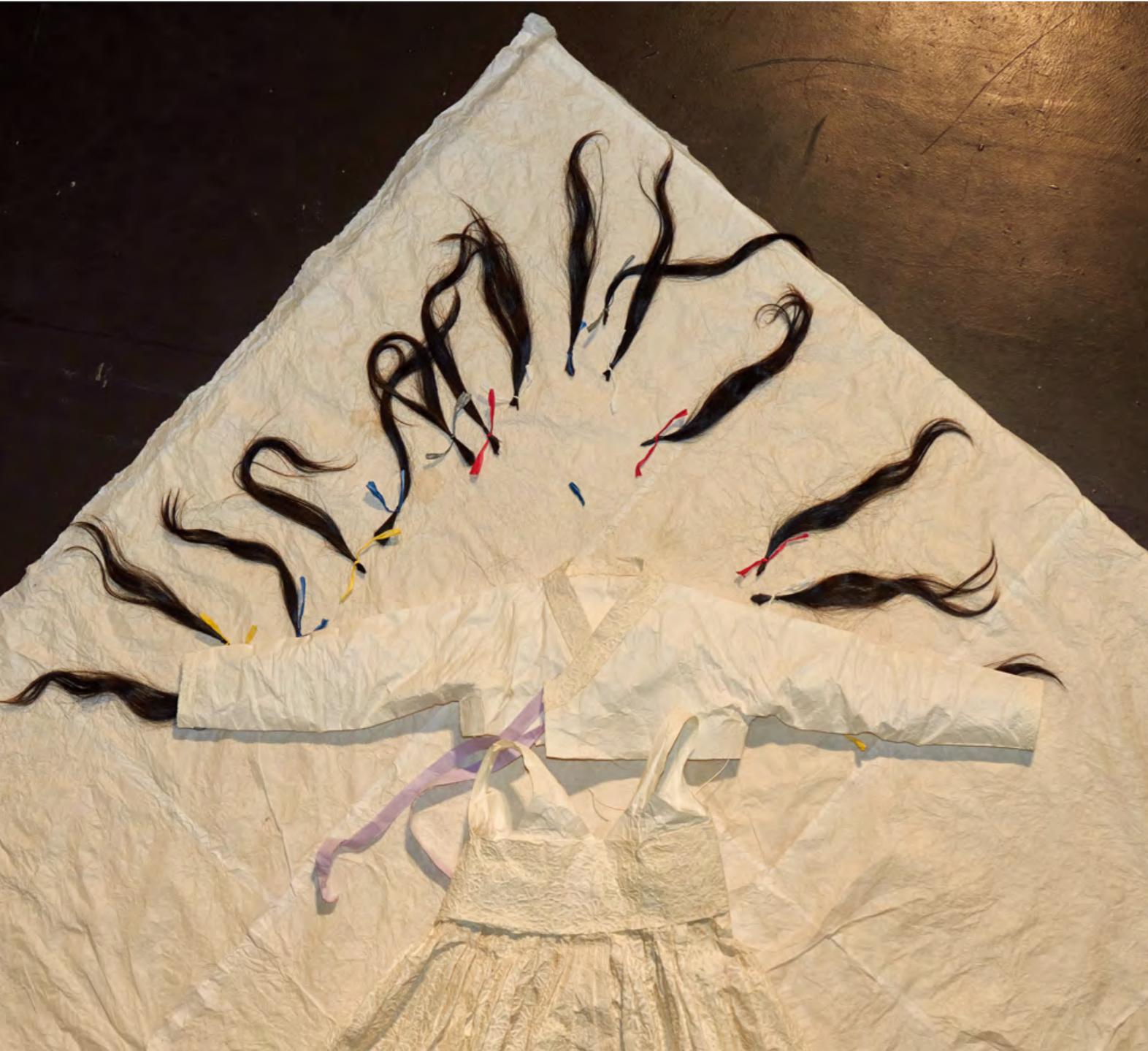
일본에서 태어난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Cut My Hair, Born in Japan

하전남 작가의 오프닝 퍼포먼스는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작가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그 이후 화해와 극복의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의 '한지'와 일본의 '화지'를 섞어 지은 한복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관객으로 하여금 작가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것으로 일단 끝난다, 하지만 작가의 퍼포먼스는 작가가 자신의 잘린 머리카락을 전시회가 끝난 후 소아암 환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암 환자를 위한 가발에 사용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한지'와 '화지'로 지은 치마 저고리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는 유사함과 동시에 상이함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예술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이웃과의 교감, 나아가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넓히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하는 듯하다.





디아스포라, 나를 마주하는 경로들

The Diaspora: The Routes Facing Me

정 현 (인하대학교, 미술비평)

Jung Hyun (Art Critic,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나는 남들에게 좀 더 이해받고 눈에 덜 안 보이는 존재가 되고자 이 책을 썼다.” -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 로스앤젤레스 출생, 1976)은 미술에 관심이 많았으나 진보적 성향의 예술대학 오벌린 대학교에 입학 후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아이오와 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시작과 예술 비평 활동을 병행한다. 두 번째 시집 댄스 댄스 레볼루션, 2008으로 버너드 여성 시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럿거스 대학교 뉴어크캠퍼스 예술대학원 석사과정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마이너 필링스』(마티, 2021), 15쪽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동시대인 누구나 세계화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은 미국영화 “미나리”, 애플이 제작한 미니시리즈 “파친코”는 미국에서 제작된 재미 한인 이민사를 다뤘고,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에 관한 미스터리라면, 대중이 열광한 “범죄도시”는 한국에 이주한 중국인을 범죄 집단으로 묘사함으로써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파친코는 3대에 걸친 한인 이주가족에 관한 대하드라마이고 미나리는 1970년대 이주한 한인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세대 및 문화의 차이를 겪으면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보여준다. ‘헤어질 결심’은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고자

"I wrote this book to become someone who is more understood by others and less invisible to others." - Cathy Park Hong(born in 1976 in Los Angeles) was interested in art, but began writing poetry after entering Oberlin College, a progressive liberal arts college. Then she wrote both poetry and art critiques at the Iowa Writers' Workshop. - 『Minor Feelings』(MATI BOOKS, 2021), p.15

Globalization has become unavoidable in everyday life economically, culturally, and socially. In other word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y of our contemporaries to escape from the network of globalization.

The American film Minari, which recently received the international spotlight, and the miniseries Pachinko presented by Apple TV+ deal with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nd Park Chan-wook's Decision to Break Up is about a mystery of a woman who immigrated from China after marrying a Korean man. The famous movie Crime City has drawn criticism for its discriminatory view which portrays Chinese immigrants in South Korea as a criminal group. Pachinko is a saga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with three generations, and Minari shows the process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as a Korean family who immigrated in the 1970s struggles to realize the American Dream experiencing differences in generations and cultures. In The Decision to Break Up, the gaze of a woman who immigrated to realize the Korean Dream plays an essential role in leading the narrative. South Korea is increasing its global presence. Why is the

이주한 여성의 시선이 서사를 이끄는 주요한 축을 이룬다.

한국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다. BTS가 세계 음악시장을 장악하고, 한국 영화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연이어 수상을 하고, 심지어 클래식 음악계는 한국인 음악가의 텃밭이 된 것 같이 연신 떠들어 대는 글로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산의 기억이 여전히 재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계 미국인 시인이자 비평가인 캐시 박 홍은 미국 출판계는 시장성이 있는 소수민족작가에게만 투자하고 대중이 원하는 ‘단일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오늘날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담론이자 테마로 다뤄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몇 해 전부터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의 지정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미술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연구와 전시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전시인 <태양을 넘어서>(2019.5.24. - 6.23.)는 고려인 변월룡 화백의 삶과 예술을 전시의 중심에 놓고 1980년대 이후 변화하는 디아스포라 양상을 그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고전적 디아스포라의 관점으로 실태를 풀어내어 20세기 이후 한반도 디아스포라의 궤적을 어렵잖이나마 제시한다. 이후 <간척지, 뉴락, 들개와 새, 정원의 소리로부터>(2021.5.21.-2021.7.25.)는 개항기 이후 개발과 간척을 통해 영토의 타자화가 반복되면서 비롯된 생태환경의 위기를 맞이한 도시 인천이 역설적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하여 에코시티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회적으로 비유하는데, 이는 디아스포라가 더는 인간중심의 역사관에 종속된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듯하다.

곧이어 열린 <송출된 과거, 유산의 극장>(2021.12.7.-2022.4.10.)은 아시아 모더니티를 비평적인 차원에서 탐색한다. 전시는 서구 열강의 무분별한 개입과 이데올로기의 이식, 서구가 상상하는 이상적 세계관과 아시아의 실재가 충돌함으로써 비롯된 굴절된 아시아의 복합적 정체성을 재방문한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를 분별하지 않고, 역사를 탓하기보다 그렇게 생존한 현재를 인정하고 타자의 차별을 넘어서 공생의 차원으로 동반하자고 요청한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는 담론이라기보다 새로운 에피스테메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세 번의 기획전이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종횡으로 이동하면서 장소, 환경, 현재와의 관계를 조망했다면,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형식으로 이뤄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한지로 접은 비행기>(2022.9.30.-11.27.)는 주로 디아스포라 당사자인 작가의 경험과 기억을 씨실로 두고 도래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엮어 각 작업 마다의 묵직한 공명을 일으키려 한다.

전시의 시작은 재일교포 3세 작가 하전남의 퍼포먼스 “일본에서 태어난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2022)로 시작된다. 작가는 관객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요청한다. 잘린 머리카락은 쓰임새가

memory of separation brought back even in this global age where BTS dominates the world music market, Korean films win awards consecutively at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Korean musicians take center stage in the classical music world? Cathy Park Hong, a Korean-American poet and critic, points out that the American publishing world invests only in marketable writers from ethnic minorities and repeats the 'single story' that the public wants. Today, if we have to deal with the diaspora as a discourse and theme, we must consider how to approach it.

For years Incheon Art Platform has actively planned art research and exhibitions regarding the diaspora based on Incheon's geopolitical conditions.

The first exhibition Beyond the Sun(24th May - 23rd June 2019) revolved around Korean-Russian artist Byun Wol-ryong's life and art. It also displayed changing aspects of the diaspora after the 1980s to unravel and present the trajectory of it after the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lassical diaspora. After that, the exhibition Reclamation, New Rocks, Stray Dogs, Birds, and Acoustics of Garden(21st May - 25th July 2021) paradoxically indirectly portrayed the process that Incheon tried to shape its new identity as an eco-c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echnologies. It seemed to declare that the diaspora was no longer subject to an anthropocentric view of history.

Soon after, Frequencies of Tradition(7th December 2021 - 10th April 2022) explored Asian modernit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It revisited the complex identity of Asia, which was refracted due to the indiscriminate intervention of the Western powers, the implantation of ideologies, and the collision between the idealistic worldview imagined by the West and the reality in Asia. Furthermore, it asked us to step into the dimension of symbiosis together by accepting the current situation we faced and going beyond the discrimination by the other rather than distinguishing tradition and modernity and blaming the past. In this exhibition, the diaspora seemed more like a new episteme than a discourse.

It might be said that the three exhibitions at Incheon Art Platform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s, the environment, and the present while moving vertically and horizontally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of the diaspora, and Korean Diaspora Ricepaper Airplane(30th September - 27th October 2022) held as a speci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mmigration tried to cause a great resonance from each work by weaving prospects for the future to come and the artists' experiences and memories directly involved in the diaspora. The exhibition began with the performance Cut My Hair, Born in Japan(2022) by Ha Jhonnang, a third-generation Korean-Japanese artist. She asked the audience to cut her hair and

있는 곳에 기부되어 또 다른 가치로 재생될 것이라고 한다. 잘린 머리 카락은 이산에 대한 비유로 신체에서 떨어진 비체(bject) 개념과 이격을 두고 새로운 가능성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여성 신체에 대한 서구의 조형 문법을 따르지 않는 점도 인상적이다.

덧붙여 전시에서 1990년대를 떠올리게 된 건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 아마도 디아스포라 담론이 처음 수면 위로 부상한 시기에 북미에서 활동한 작가들, 민영순, 박이소, 윤진미, 최성호의 이름이 후기식민주의 담론이 팽창하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 한 것 같다. 그들은 서구주류사회가 어떻게 아시아인 정체성을 단일한 서사로 소수화하는지를 목격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당시 서구 미술계는 급작스레 정치적 올바름을 과시적으로 전시 문법에 대입시켰던 시기였다. <대지의 마법사들>(퐁피두센터, 1989), <1993 휘트니 비엔날레>(휘트니미술관, 1993) 등은 서구중심주의적인 시점으로 타자의 정체성을 큐레토리얼의 주요 쟁점으로 끌어와 세계 시민주의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정치적 아방가르드를 표방하면서 세계시민주의의 포용성을 역설적으로 과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한국 주류미술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 건 1993년에 열린 <태평양을 건너서>(뉴욕퀸즈미술관, 1993)를 빼놓을 수 없겠다. 이때부터 역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역사가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국가가 외면한 재외동포의 삶에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미술에서의 디아스포라는 주로 북미권으로 이주한 아메리칸 코리안에 집중되었다.

1990년대 문호개방이 일어나면서 한국인은 회귀한 재미교포를 서양화된 동양인이라는 이국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태평양을 건너서>는 백인 남성 중심사회에서의 소수민족의 삶을 우회적으로 관측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1990년대 전후에 형성된 이른바 세계시민주의를 위한 정치적 올바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양식으로 인종적 혼합, 여성과 퀴어에 대한 포용적 태도, 나아가 몸을 기반으로 사회적 차별을 고발하는 서구적 관점에서 생성된 몸의 정치학이 당대 시각적 문법의 전형을 제시했다고 보아야 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탈냉전의 기운은 디아스포라 담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무엇보다 냉전으로 인하여 다가가 수 없었던 한인동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촉발된 점이다. 이처럼 민족종교주의의 관점에서 사할린의 카레이스키,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입양인, 새터민 등 이른바 동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디아스포라 담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고전적 관점에서의 디아스포라는 조국을 통하여 극복한다는 단일한 서사로 이뤄지지만, 이제 디아스포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이산의 고통을 절대적 존재가 된 조국을 통하여 극복하기보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실천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글렌 모리, 다프네 난 르 세르장, 제인 진 카이젠, 케이트 허스 리 그리고 갈라 포라스-김과 같은 해외입양인 작가와 혼혈 작가를 통하여 이산과

said that the cut hair would be donated to a place where it could be used and recycled, creating new value. It was impressive that the cut hair, as a metaphor for separation, did not follow the Western grammar of formative arts regarding a woman's body, and presented a new possibility away from the concept of an object separated from a body.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exhibition reminded me of the 1990s was simply not because of my interests. Perhaps, the names of the artists who were active in North America at the time when the discourse of the diaspora first emerged on the surface, Min Yong Soon, Bahc Yiso, Yoon Jin-me, and Choi Sung Ho, reminded me of the period when the discourse of postcolonialism was expanded. They are still working to publicize what they witness how the Western mainstream society minoritizes Asian identity as a single narrative.

At that time, the Western art world abruptly applied political correctness to the grammar of an exhibition ostentatiously. Magicians of the Earth(Centre Georges Pompidou, 1989) and Whitney Biennial 1993(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93) made a blueprint of cosmopolitanism by bringing curatorial issues regarding the identity of others from the Western-centric perspective. Under the name of a political avant-garde, these exhibitions seemed to exaggerate the magnanimity of cosmopolitanism paradoxically.

Meanwhile, Across the Pacific(The Queens Museum of Art, New York, 1993) cannot be left out as an exhibition that the Korean mainstream art world planned under the theme of the Korean diaspora. It is safe to say that from then on the art world began to depart from the frame of history and open its eyes to the lives of overseas Koreans who were lost to history or neglected by the country. However, at that time, the diaspora in the Korean art was mainly associated with Korean Americans who migrated to North America.

With the opening of doors in the 1990s, Koreans looked at the Korean Americans who came to South Korea as Westernized Asians with an exotic gaze. Across the Pacific provided an opportunity to indirectly observe the lives of ethnic minorities in a white male-dominated society. However, it was also a form showing political correctness for so-called cosmopolitanism, which was formed around the 1990s. It should be said that racial mixing, inclusive attitudes toward women and queers, and body politics created from a Western perspective that accused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physical appearance were emblematic of the visual grammar of the time.

The atmosphere of the post-Cold War that emerged with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scourse of the diaspora because the interest in overseas Koreans, whom we could not meet due to the Cold War, was sparked explosively. Hence, the diaspora discourse faced a new phase as the range of Koreans extended to Koreans in Sakhalin, Korean miners and nurses who had gone to Germany, Korean adopt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from a nationalistic perspective. In the classical sense, the diaspora was made up of a single narrative of overcoming the pain by relying on the motherland. However, the recognition that diaspora is

정체성의 관계는 국적과 지리 너머 새로운 정체성 생성이라는 가능성의 씨앗이 움트게 된다. 입양인은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역류하듯 모국으로 향한다. 잃어버린 한국성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본 없는 존재로 내몬 원인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위치는 늘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디아스포라는 모국의 상실을 넘어 정체성의 혼란으로 비롯된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존재의 질병을 야기한다.

과거의 디아스포라가 민족주의적 원근법으로 재외동포라는 불특정한 집단과 국가의 관계로 형성되었다면, 동시대의 디아스포라는 난민, 망명자, 이민자와 같이 자신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경계에 서있는 호모 사케르를 아우른다. 김수자가 거리의 수행자가 되어 도시를 넘나들며 구걸하는 모습은 성과 속이 겹쳐진 장면이다. 그를 둘러싼 인파는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가난하고 비참한 여인일까? 아니면 해탈한 보살일까? (구걸하는 여인-카이로, 2001)

프랑스 입양인 작가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기록과 기억을 되찾기 위하여 마치 마르셀 프루스트처럼 감각적 기억, 물질의 흔적을 따라서 세계를 횡단한다. 자신의 근원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미지의 세계이다. 정체성이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김수자는 바늘여인이기도하고 구걸하는 여인이 되기도 하고 슬픈 사연을 싣고 떠나는 여행의 안내인이기도 하다. 한국인 어머니와 콜롬비아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갈라 포라스 김은 잔존하는 것들의 유용성과 무용성이 어떻게 분류되어 의미의 질서에 편입되는지를 질문하는 작가다. 그는 자신을 100% 한국인이자 콜롬비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소속되는 건 어렵다고 전한다.

인종, 성, 민족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정체성은 스스로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디아스포라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자 현상이며 나아가 존재의 조건과 방식이기도 하다.

앞으로 세계는 더욱 촘촘하게 직조될 것이며 국가와 민족의 의미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더불어 인천 미술의 정체성을 주도하려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아트플랫폼의 노력과 의지도 감지할 수 있었다.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연구와 큐레토리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formed through relationships with various subjects regarding individual identity has been established. It is because the ultimate question and practice of individual identity have appeared rather than an effort to overcome the pain of separation by relying on the motherland as an absolute being.

With the works of artists who are international adoptees or mixed race, like Glenn Morey, Daphne Nan Le Sergent, Jane Jin Kaisen, Kate-hers Rhee, and Gala Porras-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paration and identity has sprouted a seed of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new identity beyond nationality and geography. As adoptees become adults, they return to their motherland to find their roots. It is not to regain the lost identity as a Korean, but to find out what pushed them to become rootles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Their positions are bound to be always uncertain. The diaspora causes a disease that surrounds people with multiple layers of identity caused by identity confusion beyond the loss of the homeland.

The diaspora of the past was form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Koreans as an unspecified group and the state based on the nationalistic perspective. However, the contemporary diaspora encompasses even a Homo Sacer who stands at a boundary wandering around after losing their homes, such as refugees, defectors, and immigrants. The image of Kimsooja begging around a city as a practitioner on the street is a scene where the sacred and the profane overlap. What are the crowds around her looking at? Is it a poor miserable woman? Or is it a bodhisattva who has reached Nirvana? (A Beggar Woman-Cairo, 2001)

Daphne Nan Le Serjeant, a French artist and Korean adoptee, traverses the world following sensory memories and traces of materials like Marcel Proust to recover records and memories. One's root is not simply given but is an unknown world that must be taken back by oneself. Identity is not something that is taken for granted.

Kimsooja is A Needle Woman, A Beggar Woman, and also a guide on a trip carrying a sad story. Gala Porras-Kim, born to a Korean mother and a Colombian father, is an artist who questions how the usefulness and uselessness of remains are classified and incorporated into the order of meaning. He considers himself 100% Korean and Colombian but says it is difficult to belong to Korea.

Identity formed by race, gender, and ethnicity inevitably creates difference and discrimination. Therefore, identity must come from the will to find the root. The diaspora is not a past event but an ongoing event and phenomenon. Furthermore, it is also a condition and way of being.

In the future, the world will be more tightly woven, and the meaning of the state and people will become more diverse. I could feel the effort and will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Incheon Art Platform to develop the identity of Incheon art and Diaspora Film Festival. The remaining task is, above all else, to constantly continue research and curatorial work.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Gala Porras-Kim (LA, USA)
Glenn Morey, Julie Morey (Denver, Colorado, USA)
Kimsooja (Seoul, Korea)
KIM Heejoo (Connecticut, USA)
Daphné Nan Le Sergent (Paris, France)
MIN Yong Soon (LA, USA)
PARK Yooah (Seoul, Korea / New York, USA)
BAHC Yiso (Seoul, Korea / New York, USA)
Nam June Paik (Seoul, Korea / New York, USA)
YOON Jin-me (Vancouver, Canada)
LEE Kakyoung (Seoul, Korea / Brooklyn, USA)
LEE Young Joo (Cambridge - LA, USA)
LEE Hyun-Hee (Sydney, Australia)
Jane Jin Kaisen (Copenhagen, Denmark)
CHOI Sung Ho (New York, USA)
kate-hers RHEE (Berlin, Germany)
HA Jhonnam (Seoul, Korea / Nagan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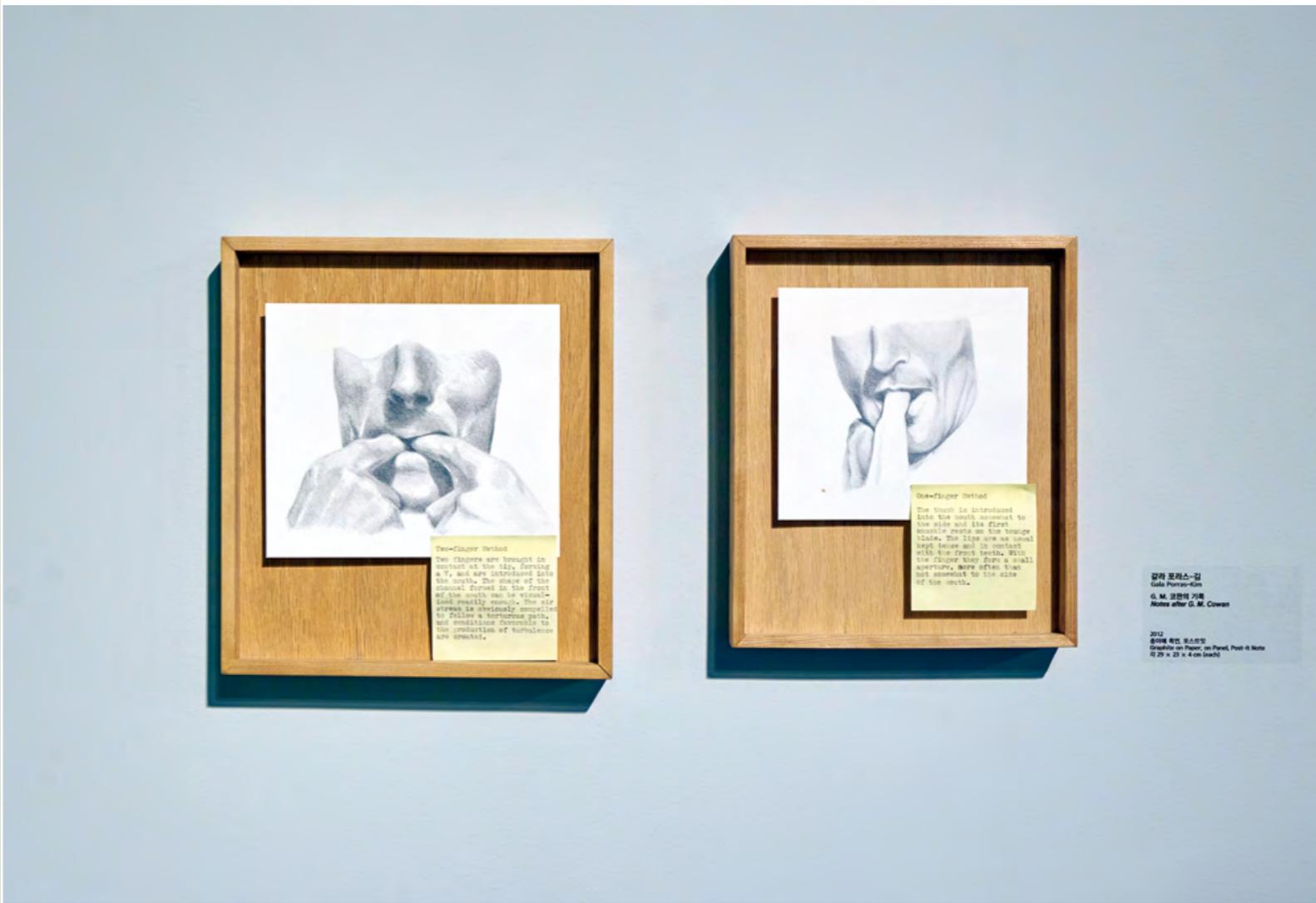
갈라 포라스-김

Gala Porrás-Kim



휘파람 불기, 그리고 언어의 변형
Whistling and Language Transfiguration

2012
 LP 앨범자켓, 청사진 인화
 LP album, cyanotype print
 30.5 × 30.5 cm



G. M. 코완의 기록
Notes after G. M. Co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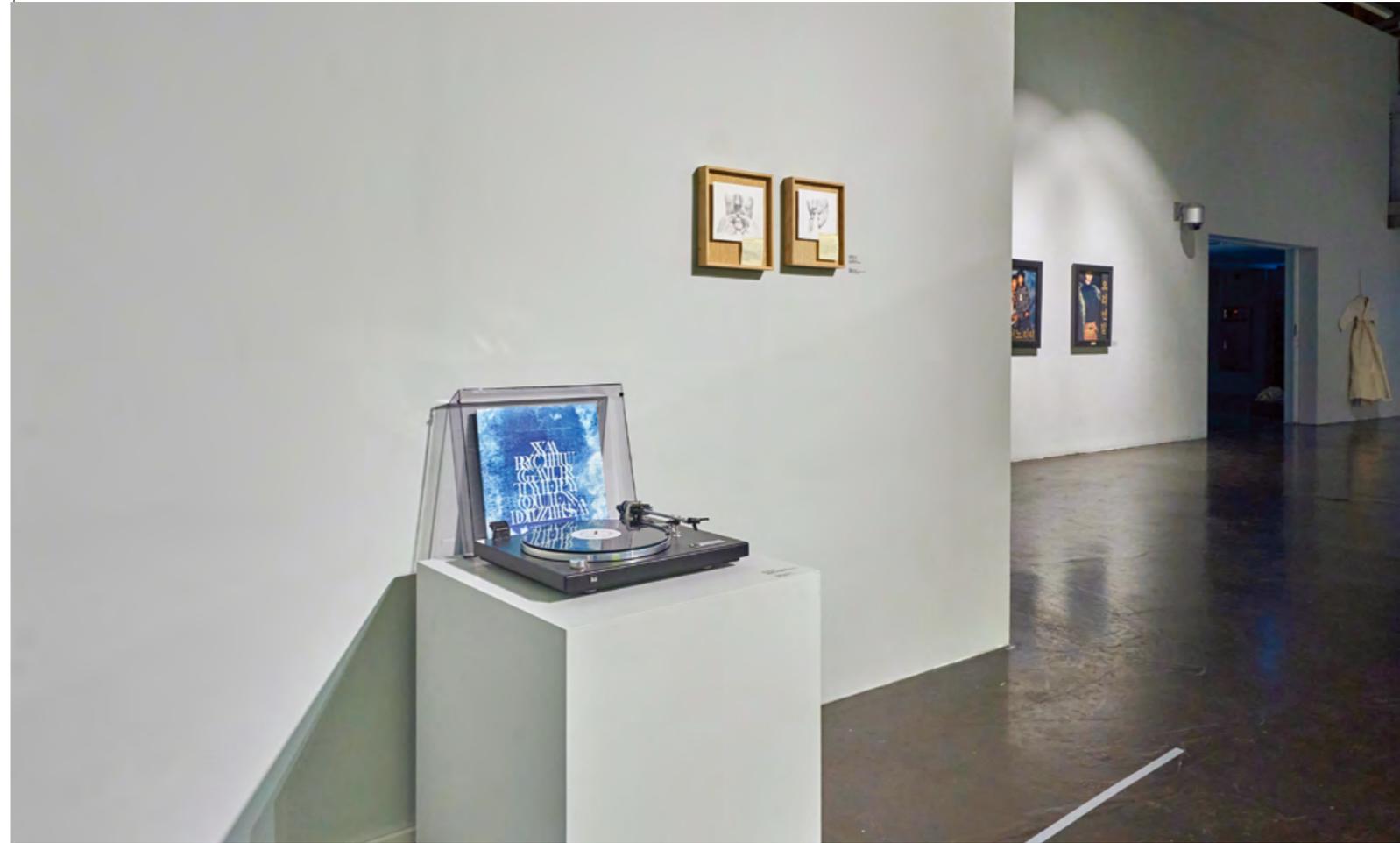
2012
 종이에 흑연, 포스트잇
 Graphite on Paper, on Panel,
 Post-it Note
 각 29 × 23 × 4 cm
 29 × 23 × 4 cm each



<휘파람 불기, 그리고 언어의 변형>은 다학제적 프로젝트로 소수 민족의 언어인 자포텍(멕시코 오하카 지역의 트라콜롤라 계곡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써 단어의 의미가 말소리의 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조 언어이다)을 번역하고 이 언어의 쇠퇴에 대한 정치적, 언어적 의미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이 작업은 문화, 언어, 특히 소리의 기표적 측면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자포텍어를 휘파람으로 번역하여 레코드 앨범을 만들고, 그 배경 연구를 위한 여러 도구를 더했다.

이 작품은 자포텍 언어의 성조가 가진 특성을 기록하고자 한 것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오늘날 스페인어의 언어적 지배에 대한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작품은 자포텍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짚어내면서 그 생존 가능성을 보전하고, 자포텍 사람들의 문화 유산이자 현재인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휘파람 언어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다양한 소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작품 <G. M. 코완의 기록>은 어떻게 휘파람을 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묘사한 드로잉 작업이다.



Whistling and Language Transfiguration is an interdisciplinary project involving the translation of a minority language, Zapotec(The Zapotec language of the Tlacolula Valley in Oaxaca Mexico is a tonal language where the content of the words is partly contained within the intonation of speech), and the political and linguistic implications of the language's deterioration. The work examines the ultimate and literal signifier of culture, language, particularly its sounds. The works in WaLT include a vinyl record edition of a translation of Zapotec into whistling, as well as the tools made for its background research. The work uses the tonal qualities of the Zapotec language as a hidden transcript, as a way that resistance to the linguistic domination of the Spanish language can be manifested today. It represents an effort to maintain the viability of the Zapotec language by pointing out its unique qualities, and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a language that was and is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Zapotec people.

Anthropologists that have studied whistled languages have described different methods of producing various tones. The works of *Notes after G.M. Cowan* are illustrations depicting these methods, along with the written instructions on how to produce them.

글렌 모리, 줄리 모리

Glenn Morey, Julie Morey

힘한 상실감은
는 것 같아요



이모할아버지가 차로 입양기관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잃은 것들
Given Away

2019
영화 Digital Film
16:24

지난 65년 동안 약 20만명의 한국 영유아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고아가 되었거나, 이러저러한이유로 친부모에게서 떨어진 아이들은 한국에서 자라지 못하고 서구의 가족에게로 흩어져 자랐다.

글렌 모리와 줄리 모리 부부의 <우리가 잃은 것들>은 뉴욕타임즈가 우수 단편 다큐멘터리 필름에 수여하는 오피독스(Op-Docs)상 수상작으로, 크게는 사이드 바이사이드 프로젝트(The Side by Side Project)의 일부이다. 사이드바이사이드 프로젝트는 10년 넘게 진행해 온 멀티플랫폼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젝트로, 100명의 한국 해외입양인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7개국, 16개 도시에서 6개 언어로 촬영되었다.

<우리가 잃은 것들>은 그 중 미국과 호주로 입양된 한국인 6명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이들은 버려짐, 단념, 사랑, 상실, 트라우마와 회복, 재결합 등 답을 얻지 못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는 지금은 성인이 된 한국인 입양아들의 인생 경험과 그를 통한 복잡한 감정적 지형을 다룸으로써 세계 입양인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Over the past 65+ years, about 200,000 infants and children have been adopted out of South Korea. Orphaned, or somehow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of origin, these Koreans grew up in predominantly non-Korean, Western families around the world.

This New York Times Op Doc, *Given Away*, is part of the Side by Side Project—a 10-year, multi-platform documentary film project that has captured the stories of 100 adopted and aged-out Koreans, filmed in 7 countries, 6 languages, and 16 cities. *Given Away* focuses on the stories of 6 adopted Koreans, now living in the U.S. and Australia—stories of abandonment and relinquishment, love and loss, trauma and resilience, search, reunion, and unanswered questions. These are the life experiences and complicated emotional terrain so often shared by this global community of adult Korean adoptees.



김수자

Kimsooja



구걸하는 여인-카이로

A Beggar Woman-Cairo

2001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스테레오)
Single channel video with color and sound (stereo)
8:52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Courtesy of Seoul Museum of Art



<구걸하는 여인>(2001)은 다양한 장소에서 제작된 퍼포먼스 기록 영상이다. 김수자는 2000년부터 1년여간 멕시코, 카이로, 라고스의 거리에서 동양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 작품은 카이로에서 촬영한 것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파 사이에서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마치 명상하듯 앉아 있다. 고요하게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여인은 작가 본인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바늘 여인'(1999-2001), '빨래하는 여인'(2000), '집 잃은 여인'(2000-2001)과 함께 '구걸하는 여인'은 떠돌이처럼 사는 삶에서 느끼는 감정을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에 비유하면서 관람자들의 철학적 성찰을 유도한다.

(출처: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A Beggar Woman (2001) is a video recording of performances that took place in various sites. Kim filmed herself begging on the streets of Mexico, Cairo and Lagos for about a year from 2000. Filmed in Cairo, *A Beggar Woman-Cairo* features a woman in a busy moving crowd of people with her back turned, sitting as if she were meditating. Sitting silently and still in a floating position, the woman is also the self-portrait of the artist herself. Along with *A Needle Woman* (1999-2001), *A Laundry Woman* (2000), and *A Homeless Woman* (2000-2001), *A Beggar Woman* draws an analogy between what the artist feels in a life as a wanderer with the sense of alienation one feels in a crowd, and invites the viewers to their own philosophical reflections.

(Source: Website of Seoul Museum of Art)

김희주

KIM Heejoo



그다음 주에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었어요

베틀의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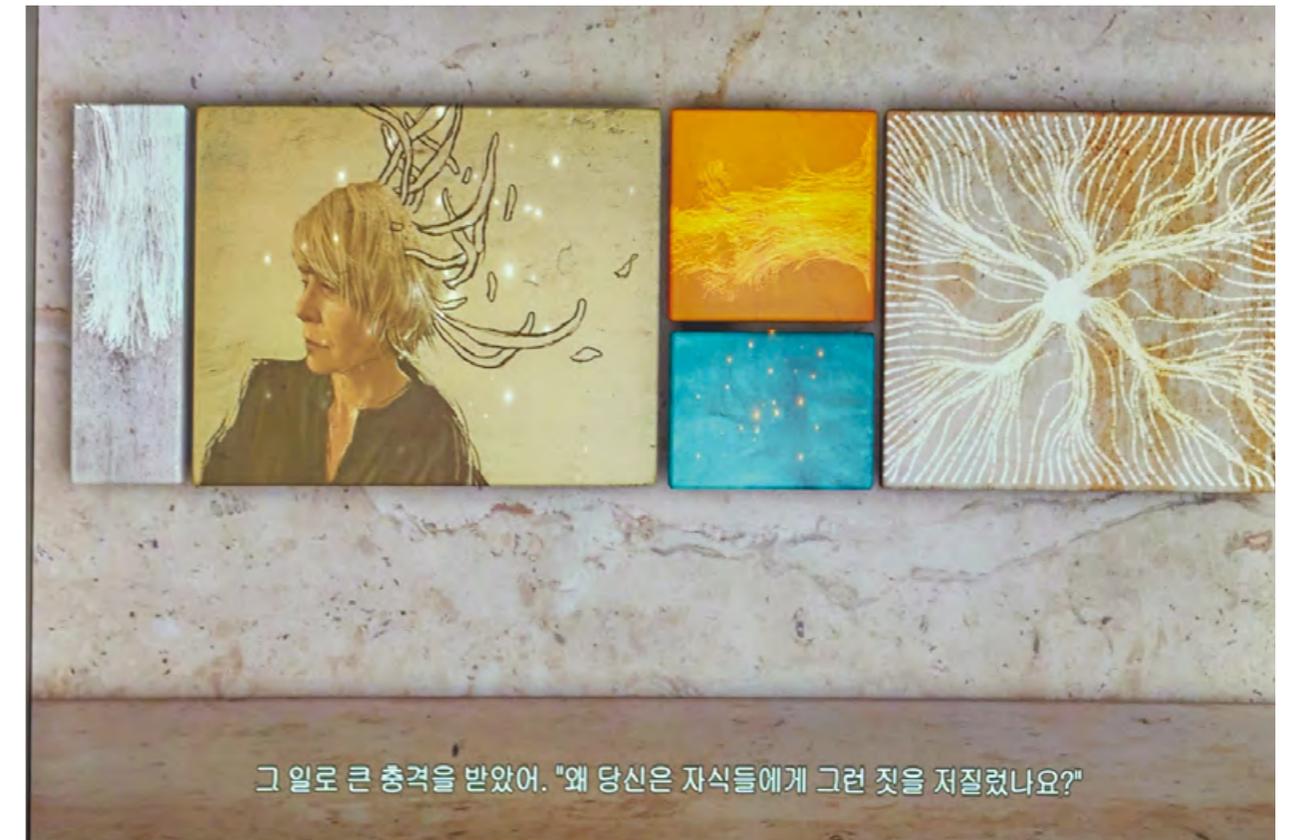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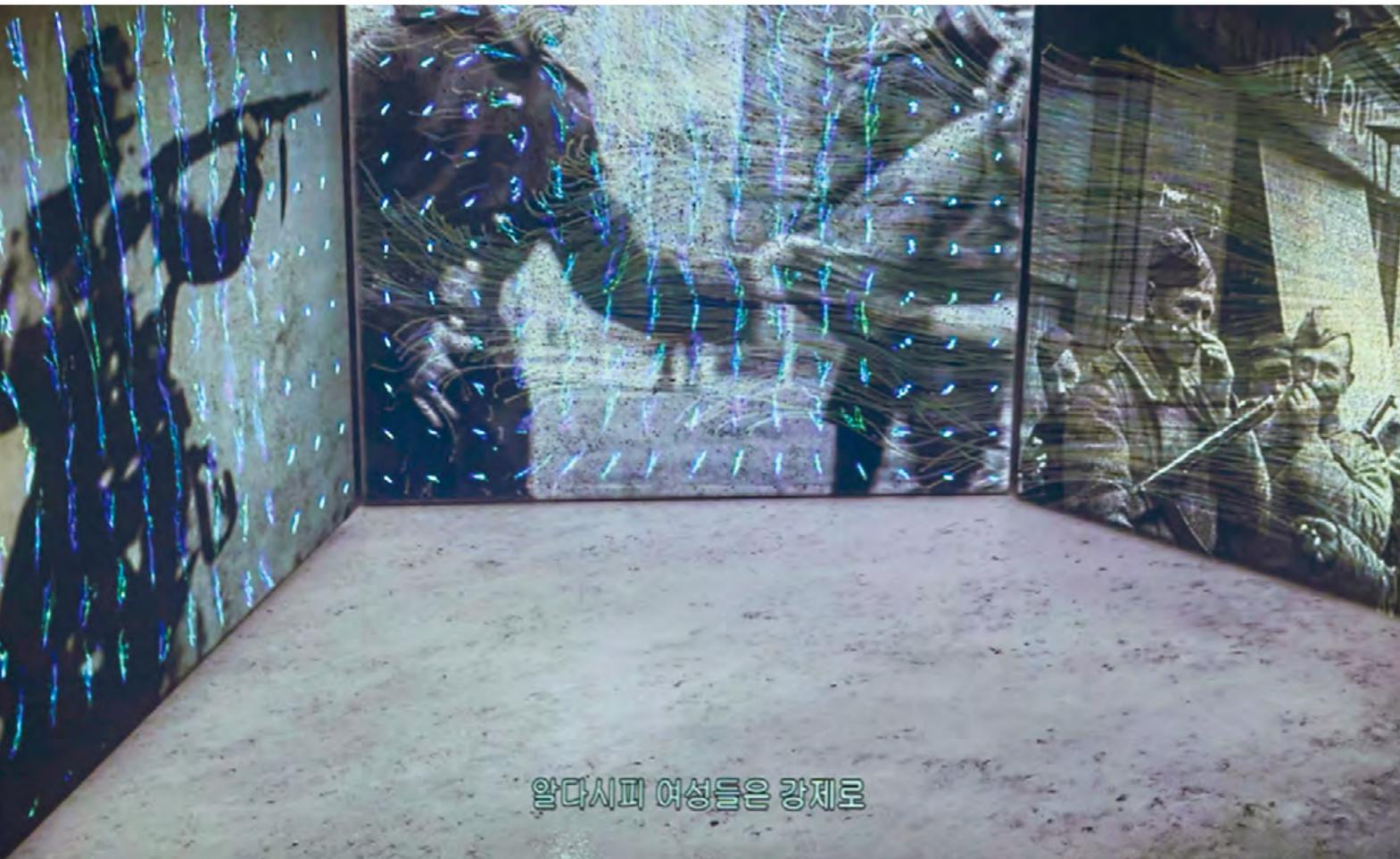
Behind the Loom

2021
혼합 매체 영상 Mixed Media Video
11:00

<베틀의 뒤>는 1945년 베를린 포위작전의 충격을 여성의 관점에서 설명한 영상이다. 작품은 알리, 하니와 그들의 네 딸을 알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베틀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영상은 전쟁에 관하여, 특히 1945년 붉은 군대의 베를린 포위작전이 초래한 집단 강간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며, 징집되었다가 돌아온 예술가가 가족의 죽음과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예술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베틀의 뒤>는 실험적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역사, 인권, 페미니즘 문제를 함께 다룬다. 영상은 강간이 1945년 당시는 물론 현대 사회에서 매우 잔악한 전쟁 범죄임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이 여성에게 끼친 영향과 충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 가족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쉽게 잊혀질 법한 이 이야기는 관객들로 하여금 베를린 공방전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작품이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드로잉, 디지털 사진, 영화, 내레이션, 모션 그래픽 등 시각적 요소와 음악 구성 및 사운드의 상호 작용은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방식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서사 방식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Behind the Loom describes the impact of the 1945 Siege of Berlin from a female perspective. This film that explores the mystery of the loom through testimony by those who knew Ali, Hanni, and their four daughters. It tells the story of war: the mass rapes and suicides leading up to the Siege of Berlin by the Red Army in 1945. It gives us an insight into how a returning conscripted artist might have used art to cope with the death of his family and the trauma of war.

Behind the Loom incorporates history, human rights, and feminism in an experimental documentary film. The intention is to produce a film about the impact of war on women underscoring rape as a war crime in 1945 and current society. Told from the perspective of one family, this common yet forgotten story will challenge audiences to rethink events surrounding the Siege of Berlin.

The interplay of animation, drawing, digital photography, film, narration, motion graphics, music composition, and sound challenge traditional storytelling, as well as challenge traditional narratives of World War II history.

다프네 난 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nt



The world is a sphere, you say
네가 내게 말했지 세계는 하나의 구(球)라고



우리 내면의 인도를 향한 여행

Travel to our Inner Indias

2019
HD Video
14:00

음악: 뱅상 기요
에르메스 재단 및 귀안 카르마 아트센터 제작 지원
Music: Vincent Guiot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nd of Carma Art Center in Guyane



I am the memory of things inside you
나는 네 안에 있는 사물들의 기억이야

<우리 내면의 인도를 향한 여행>은 서쪽을 향하던 유럽의 정복자들이 어떻게 동인도에 닿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한다. 유럽 정복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그곳에 '서인도 제도'라는 잘못된 이름을 붙였다. 이후 그 지역 주민들은 인디언이라 불렸다. 영상의 사운드트랙은 타밀어(인도 남부의 언어)로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곡조(프랑스령 기아나와 수리남의 칼리나족)이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다 내면의 탐구, 미지의 땅(terra incognita)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천천히 흘러 가며 전환된다.

작품은 자아가 가진 연속적인 여러 층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는데, 서구화된 생활 방식과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가장 외부의 층, 무언가에 집중하는 능력과 주어진 역할(직함)이 주는 무게감으로 이뤄지는 중간 층, 주변에 대한 자기 비전과 내적 감각을 포함하는 깊은 내면의 층으로 이뤄진다.



Travels to our Inner Indias narrates the journey of the westward bound European conquerors en route to the East Indies. Upon discovery of the Americas, they knew next to nothing about this new world and mistakenly named it « Western Indies ». Henceforth local inhabitants would be named Indians. The video's soundtrack features a Native American tune (by the Kali'na people of French Guiana and Suriname) as sung in Tamil (a language from Southern India). The tale under-goes a slow transformation: now it's not so much a journey from East to West as it is an inner quest, a discovery of the Self as Terra incognita. The video endeavours an exploration of the successive layers of the Self: the external layer, which interfaces with westernized life-styles and global flows; the middle layer, that of focal sight and the strength of designation; the deep layer, which entails peripheral vision and inner sensations.

민영순

MIN Yong Soon



엘리스 미옥
Alice Miok

2018
아카이벌 프린트 Archival Print
46×92cm

작가는 <엘리스 미옥>이아말로 권력 관계와 젠더 규범에 도전하고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좇았던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선구자라고 주장한다. 1903년 하와이 태생으로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엘리스 미옥은 1920년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박헌영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되고, 사진 속의 이 신비롭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역사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박헌영은 남조선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이후 1955년 김일성에 의해 처형된 인물이다. 엘리스 미옥은 박헌영 사망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 실종되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저고리 스타일은 엘리스 미옥이 살았던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정병준은 저서 『엘리스 현과 그의 나날들』에서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모아 엘리스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다.



양쪽의 현재
Both side Now

2018
아카이브 프린트 Archival Print
61x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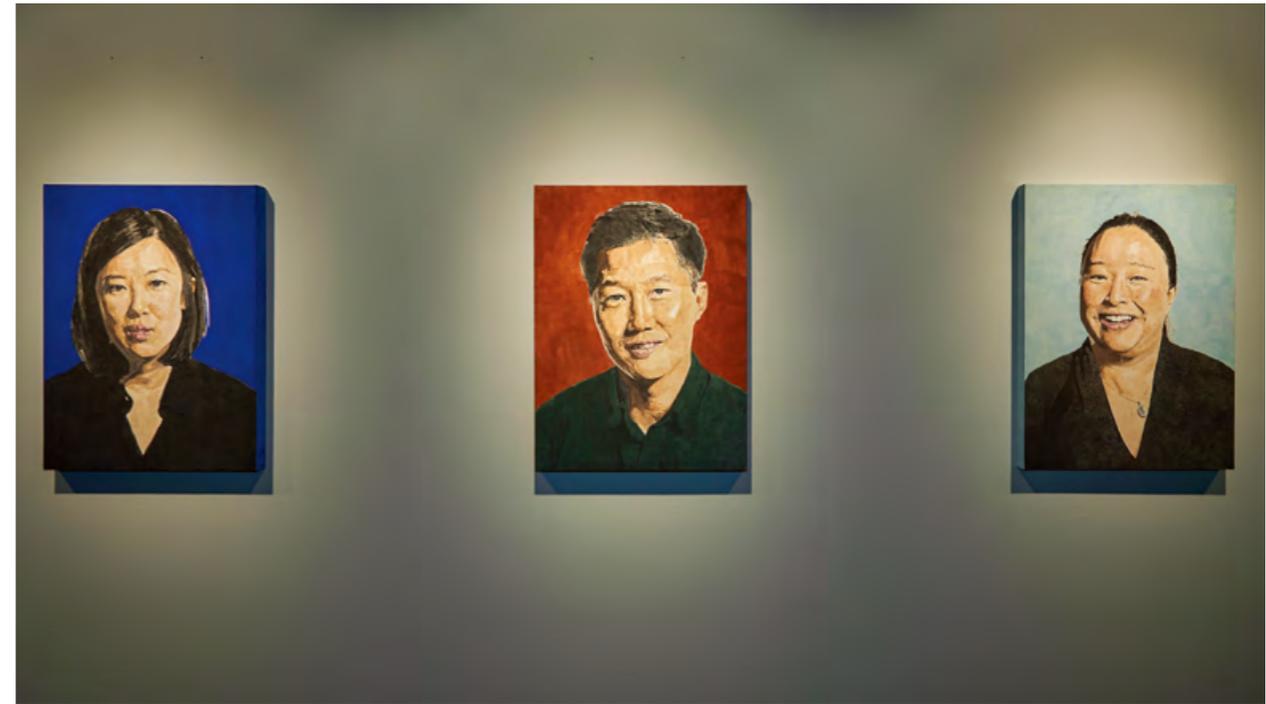
<양쪽의 현재>는 작가가 1988년 북한 비무장지대 방문 당시 구입한 엽서와 1995년 남한 판문점에서 구입한 엽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의 풍경이 담긴 남한 쪽 엽서와 북한 쪽 엽서를 각각 한장씩 고른 후 세로로 길게 자르고 이를 번갈아 붙이는 작업으로, 엽서의 뒷면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Using postcards personally purchased in Panmunjom, South Korea in 1995 and at the DMZ in North Korea in 1988, **Both Sides Now** brings together both sets of images of the border at the DMZ, alternating each slotted views of the North with the South, with matched back sides.

The artist claim **Alice Miok**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pioneer who challenged power relations, gender norms and pursued her passion for socialist ideals. Her dynamic, tragic short life, born 1903 in Hawaii, brought historians' attention with the 1920 photograph taken in Shanghai as the mysterious attractive young woman in the same photo with Pak Hon-Yong, who was later purged in 1955 by Kim Il Sung as the competing Communist leader from the South. This cheogori style image shows various significant sections of Alice Miok's life before she disappeared in North Korea around the same time after Pak Hon-Yong's death. Jung Byung-Joon pieced together the scant materials of her life in his biography, *Alice Hyun and Her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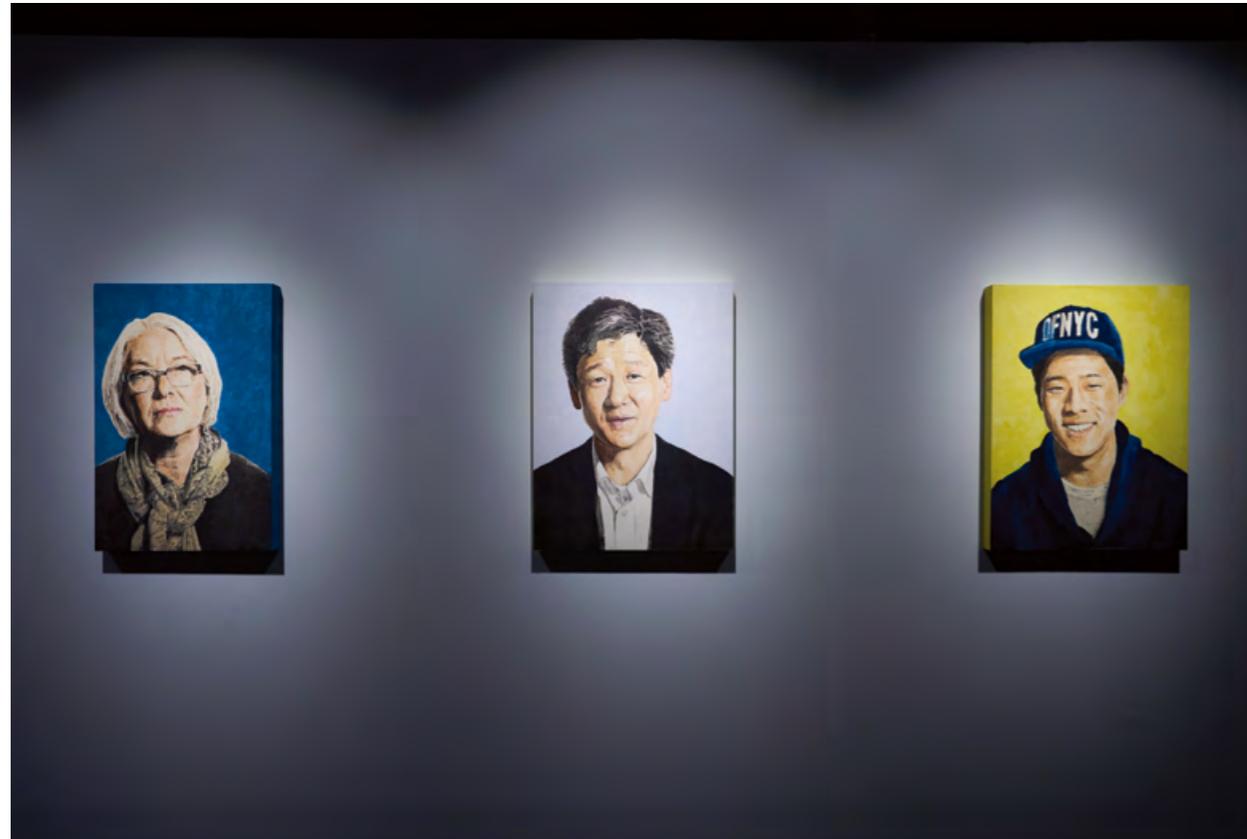
박유아 PARK Yooah



위버멘쉬 시리즈 *Übermensch series*

2020
장지에 채색 Pigment, paper
각 61x46x4cm(each)

<위버멘쉬> 연작은 박유아 작가가 2018년에 우연한 기회에 접한 한인 입양인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을 초상화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다큐멘터리가 인간 실존에 대한 물음과 니체의 '초인 개념(위버멘쉬)'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100개의 인터뷰를 보는 내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의 축복을 염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작가는 영상에 등장하는 입양인의 개별 이야기에 감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오롯이 겪어내고, 살아낸 인간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며, 그들 하나하나를 기존의 가치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긍정하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승리자, 즉 위버멘쉬적 인간상으로 그들을 그려냈다.



The *Übermensch* series is a body of paintings of interviewees from a documentary video about Korean adoptees the artist happened to see in 2018. The artist saw that this documentary questioned the human existence and reflected Nietzsche's concept of *Übermensch*. The artist listened to each and every one of all 100 interviews and found herself wishing for their blessings. Rather than be touched by the individual stories of the adoptees in the film, the artist saw them with a sense of respect and reverence for human perseverance and endurance for their own life. She portrayed each one of them with a super-human strength, or *Übermensch* human character, as a true conqueror who creates a new value by affirming themselves and not being bound to existing values or morals.

박이소
BAHC Yi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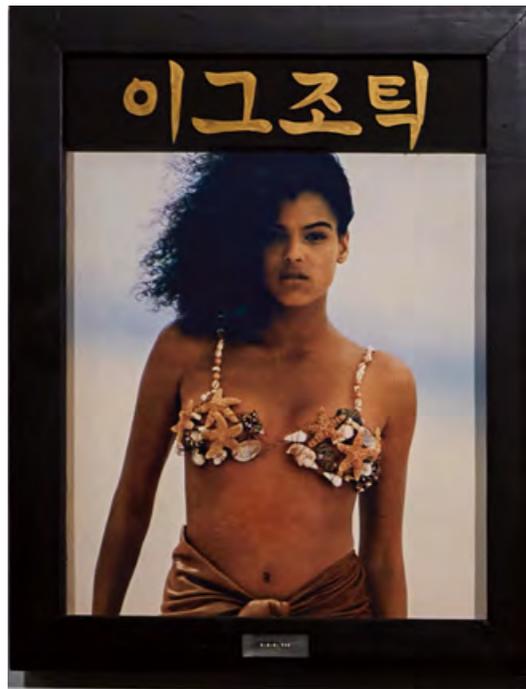
작가는 이 작품을 실현하지 못하고 설계도라 할 수 있는 드로잉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작가는 이 드로잉의 한 귀퉁이에 세로 가로의 크기를 “732 x 4026 cm이거나 혹은 그보다 크게”라고 써넣고 있다. 이는 그저 무작위로 만든 크기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판의 크기(4x8피트=1220x2440cm)를 연이어 33장을 붙였을 때 결과하는 크기로, 작가가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고민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만한 크기의 작품을 거치할 수 있는 빌딩을 찾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 후 2004년 부산비엔날레에서 이 작품을 광장에 설치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박이소의 회고전 <기록과 기억>전 당시, 그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옥상에 이 작품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시도됐으나, 문화재청의 “경복궁 주변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우리는 행복해요
We Are Happy

2004, 2022
합판 위에 페인트
265x1420cm

작품 <우리는 행복해요>는 작가의 갑작스런 타계 이후 남아있던 드로잉을 실제로 작품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작가가 드로잉에서 지시하고 있는 크기 “732x4026cm”를 충족하지 못했다. 유족과의 오랜 상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인천아트플랫폼의 전시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의 크기인 265x1420cm로 제작됐다.

We Are Happy is a work which remains as a sketch after Bahc's sudden passing. Later on, it was produced into an actual work, then shown at Busan Biennale. In the form of an advertising signboard, the self-fulfilling sentence in this work alone leaves behind numerous questions. It not only stirs up the initial question “Am I really happy?” but continues to deepen the question like “Can we, as multiple selves rather than as individuals, collectively feel and claim happiness as a whole?” This work demonstrates the quintessential nature of conceptual art.



박이소의 작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타자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등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되풀이된다. 작가는 그리 길지 않은 생애에서 이름을 박철호-박모-박이소 등 3번 바꾸는데, 그것도 ‘정체성’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 <이그조틱, 마이노리티, 오리엔탈>은 뉴욕에 체류할 때의 작품으로 ‘The Clocktower Gallery’(1990)에서 처음 선보였다. 뉴욕의 유명작가들이 뜻을 합쳐 기획한 전시 <공공의 거울 : 인종차별과 싸우는 예술가들>전에 그는 Exotic Minority Oriental이란 영어 단어를 영어가 아니라 한글의 굵은 명조체로 써서 내걸었다. 박이소 작가와 함께 이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 이태호는 “오프닝 날이어서 관객이 많았는데,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뉴욕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눈에 띄는 한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시장에 있던 사람들 중 그 한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나는 작품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면서 천천히 마이너리티라는 말의 뜻을 실감하고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이그조틱, 마이노리티, 오리엔탈 *Exotic, Minority, Oriental*

1990
컬러 사진과 에나멜 페인트
Color photographs and enamel paint
각 76×61cm(each)

개인소장 Private collection



The consistent theme in Bahc Yiso's work is exploration into identity, and asks questions like “Who am I?” and “How am I different and same with others?” The artist's deep relationship with “identity” is clearly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e artist changed his name 3 times (Bahc Cheol-ho, Bahc Mo, Bahc Yiso) throughout his rather short life. Bahc's work *Exotic, Minority, Oriental* was first presented in The Clocktower Gallery (1990) during the artist's sojourn in New York. *Shown in PUBLIC MIRROR: Artists Against Racial Prejudice*, a group exhibition organized by acclaimed New York artists, Bahc phonetically printed in Korean the English words “Exotic Minority Oriental,” using the thick Ming-style printing type for Hangeul (Korean alphabet). Fellow artist Lee Taeho, who also showed his work in this exhibition with Bahc, remarked, “There were many visitors at the opening of the show. When I first saw his work on that day, I was totally taken by surprise to suddenly see Korean words in the middle of New York City. I, one of the only people in the gallery who could read and understand Korean, stood in front of his work for a long time. Slowly, the meaning of the word “minority” started to sink in.”



1990년 뉴욕, <공공의 거울: 인종차별과 싸우는 예술가들> 전시에 출품된 박이소 작품

사진제공 이태호

Bahc's work in the exhibition PUBLIC MIRROR:
Artists Against Racial Prejudice in 1990, New York

Courtesy of LEE Taeho

백남준

Nam June Paik



한국이 낳은 세계적 예술가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작품 중 그의 의식과 무의식에 깔려있던 한국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 함께 감상하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이 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작가가 오랜 해외 생활에도 불구하고 모국에 대한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운관 TV를 쌓고 연결해 인체나 사물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백남준 작품의 한 유형인데, <울곡>이 그런 유형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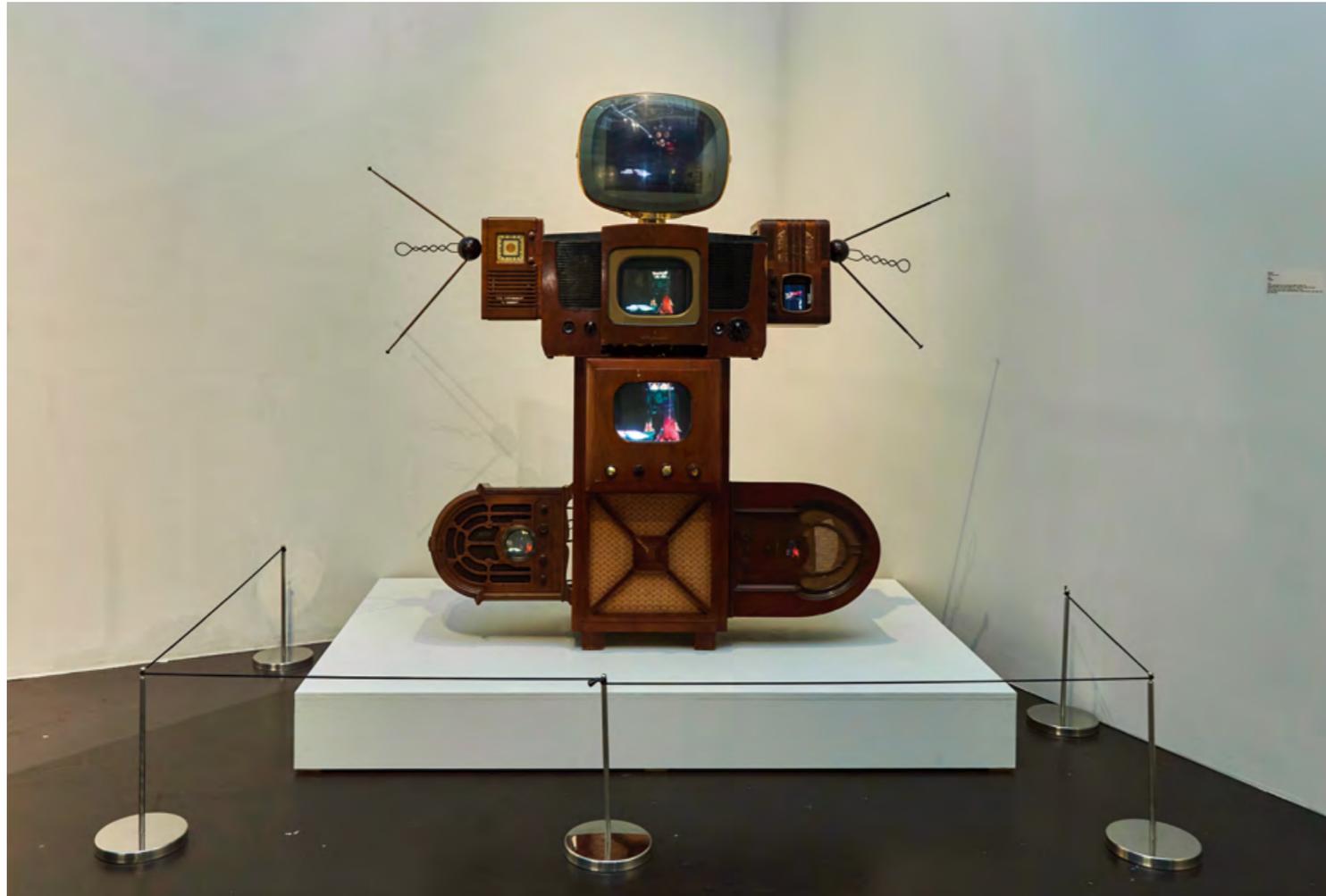
작품 <무제-금강산폭포>와 <무제-천수관음>은 작가의 드로잉작품이다. 작가는 일종의 유희처럼 아무런 긴장 없이 붓으로 소박한 형상을 그리고 그 옆에 글자를 쓰고 있다. 그 글자는 작가 세대에게는 한글보다 더 익숙한 한자이다. <머리를 위한 선>은 짐작컨대 독일의 플럭서스와 함께 실현했던 퍼포먼스의 자취로 보인다. 머리를 마치 붓처럼 사용한, 즉 머리카락에 먹물을 묻히고 흰 종이 위에 머리로 드로잉을 한 후 남은 자취인 것이다. '신체미술(body art)'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전위예술가로서의 젊은 백남준을 기억하게 한다.



머리를 위한 선 Zen for Head

연도 미상 n.d.
종이에 먹 ink on paper
200×71cm

백남준 아트센터 소장품
Courtesy of NJP Art Center



울곡 Yulgok

2002

CRT TV 모니터 4대, LCD TV 모니터 3대, 진공관 TV 케이스 3대,
진공관 라디오 케이스 4대, 비디오 분배기 2대,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DVD

4 CRT TV sets, 3 LCD TV sets, 3 vacuum-tube TV cases,
4 vacuum-tube radio cases, 2 video distributors,
1-channel video, color, silent, DVD

165×189×48cm_2002

백남준 아트센터 소장품

Courtesy of NJP Art Center

Nam June Paik, a world-renowned artist born in Korea, is famous as the founder of video art. This exhibition presents Paik's works that revive the artist's memories of Korea which lie in his consciousness and subconsciousness. Upon meditation of these works, the viewers can recognize how the artist treasures his memories of his homeland deep in his heart, despite his long period of living abroad. One of Paik's signature styles is building and connecting cathode-ray tube TVs to make a form of human body or objects, as shown in *Yulgok*. The works *Untitled-Waterfall in Mt. Geumgang* and *Untitled-Thousand-armed Avalokiteshvara* are the artist's drawing works. As if to engage in a play, Paik lightly drew simple forms with a brush. Then he wrote, next to these forms, Chinese characters, which is a text that is more familiar to people of his generation than Hangul, Korean alphabet. Evidenced in the title, *Zen for Head* is a trace of a Fluxus performance in Germany. The work is a documentation of the performance, where the hair of the performer was dipped in ink and drawn on paper like a brush. This work, which can be called "body art," reminds the viewer of the artist Nam June Paik as a young avant-garde artist.



윤진미
YOON Jin-me



Long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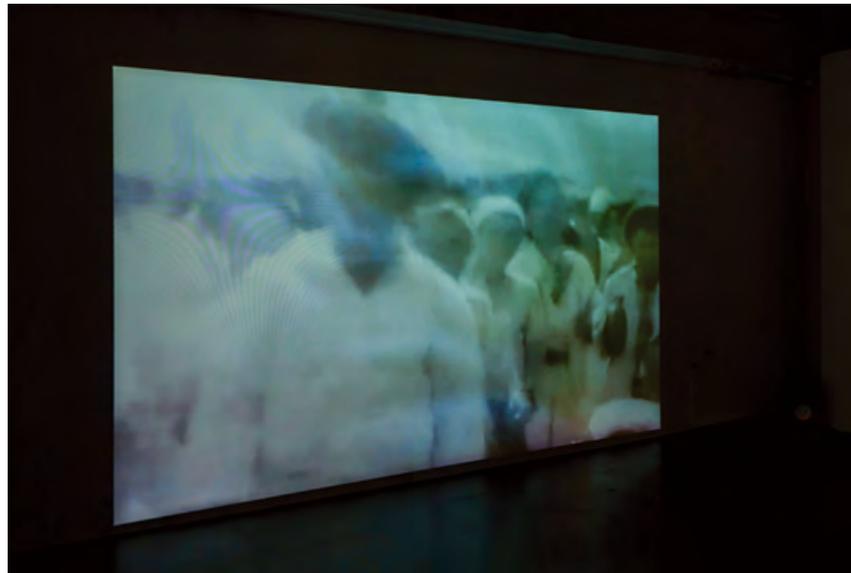
2017
단체널 영상 Single-channel video
10:04



윤진미 작가의 <Long View> 연작은 환태평양의 지리와 연결된 역사적, 군사적, 개인적 맥락을 탐구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해변에서 구멍을 파다가 돌아가며 수평선을 응시하는데, 이는 마치 도사리고 있는 위협을 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저 바다 건너 한국 해안을 향해 그리운 시선을 던지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익명의 인물이 나타나 사람들이 파던 구멍으로 사라지고 나면 곧 다른 시간성이 나타난다. 아카이브 이미지, 어지러운 카메라 움직임, 실험적인 사운드 신호는 내면으로 가는, 기억에 기대어 있는 현실을 향한 통로 역할을 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기와 저기, 그때와 지금은 모두 물살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이미지들의 몽타주 속에서 소용돌이친다.

작가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두 개의 해안선은 바다 전체를 통해 나뉘기도하고 연결 되기도 하면서 그 장소의 이야기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The *Long View* series explores the historical, military, and personal threads that connect geographies on the Pacific Rim. In this video, the protagonists regularly stop to scan the horizon, perhaps watching for potential threats, or simply letting their gaze drift longingly across the ocean towards the Korean coast. But when they dig a hole on the beach and the anonymous black-clad figure amongst them disappears into it, a different temporality takes hold. Archival images, dizzying camera movements and experimental sound signal a passage to an interior, memory-based reality. Past, present, and future; here and there; then and now are all caught in an undertow, swirling together in a disorienting montage that brings the site's histories to the surface to include the entire ocean that separates but also connects the two coastlines that have shaped the artist's identity.

이가경 LEE Kakyong



남겨진 아이들
Children Left Behind

2022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Stop Motion Animation
2:00



애니메이션 <남겨진 아이들>은 제주 4.3 사건으로 알려진 한국 전쟁 이전에 일어난 제주 항쟁을 배경으로 한다. 제주 항쟁 기간에 제주도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이 학살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버려졌다. 목탄으로 그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남겨진 아이들>은 이 사건에서 부모를 잃은 한 어린이에 주목하는데, 아이는 현재 70대 할머니가 되어 자신의 부모가 묻혔을 법한 묘소를 방문한다. <오가는 사람들>은 아시아인 혐오범죄에 주목한다. 이 작업은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시 주변의 혐오범죄에 대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참고하여 드라이 포인트 판화 기법을 사용한 판화 애니메이션이다. 작품은 약 60개의 드라이 포인트 판화 이미지와 거리에서 녹음한 사운드로 구성된다. 판화 작업 과정에서 이미지의 선이 점차 겹치는데 이를 통해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이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작품은 작년 뉴욕시에서 벌어진 어느 폭력 사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길가던 사람이 아시아 노인 여성을 밀어 땅에 쓰러뜨리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이 여성은 머리를 다쳐 10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한다. <오가는 사람들> 연작은 작가가 BIPOC*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범죄가 기록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집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흑인, 원주민, 유색 인종(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으로 백인이 아닌 인종을 가리킴.



The animation, ***Children Left Behind*** is based on the Jeju Uprising before the Korean War, which is also known as Jeju 4.3. incident. Through the Jeju Uprising, more than 10% of its population was executed and many children were left behind without their parents. The charcoal-drawn stop-motion animation, *Children Left Behind* portrays a child who has lost her parents during the incident, now as a grandmother in her 70s, visiting a graveyard where her parents might've been buried.

Passersby directs the focus to Asian hate crimes. It is a print animation with drypoint prints based on video surveillance clips of hate crimes around New York City in the past couple of years. *Passersby* consists of around sixty individual drypoint prints with sound captured from the street. The lines of the images are gradually overlapped in the printing process to create a moving image of 'Passersby'. It's based on surveillance footage of an elderly Asian woman being pushed and thrown to the ground by a stranger in NYC last year. She left the hospital with 10 stitches on her head. This *Passersby* series is an ongoing project for which the artist continually researches and collects surveillance clips related to the hate crimes against the BIPOC* communities.

*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

이영주

LEE Young Joo



아버지는 쇼파 위에 곤히 잠들어 계시고,

수치스러운 파랑
Disgraceful Blue

2016
디지털 애니메이션 Digital Animation
10:24



이제 나 혹은 네 아기 중 한명을 고르라

<수치스러운 파랑>은 작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면서 꾸었던 여러 꿈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작품에서 아시아 여성이 파란 눈을 가진 딸을 낳는다. 그 아이의 가족은 낯선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기를 무시한다. 딸과 엄마로서의 책무에서 갈팡질팡 하던 아시아 여자는 아기를 안고 바다로 뛰어든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 서사의 관점이 아시아 여성에게서 아이에게로 옮겨진다. <수치스러운 파랑>은 순응적 사회에서 '타자'로 살아야했던 주인공의 여정을 묘사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타자성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푸름'을 지울 수 없다는 것과, 다음 세대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Disgraceful Blue is based on a series of dreams the artist had while she lived in Frankfurt, Germany. In the work, a daughter with blue eyes is born to an Asian woman. Her family neglects the newborn for having a foreign physical feature. The woman, split between her obligation as a daughter and a mother, jumps into the sea with the baby. At this point, the perspective of the narrative shifts from the woman to the baby. The story of *Disgraceful Blue* depicts a journey of a heroine who is 'the other' in a conforming society. She hides her otherness only to realize in the end that her inner 'blueness' cannot be erased, but it is born again in another form, in the next gen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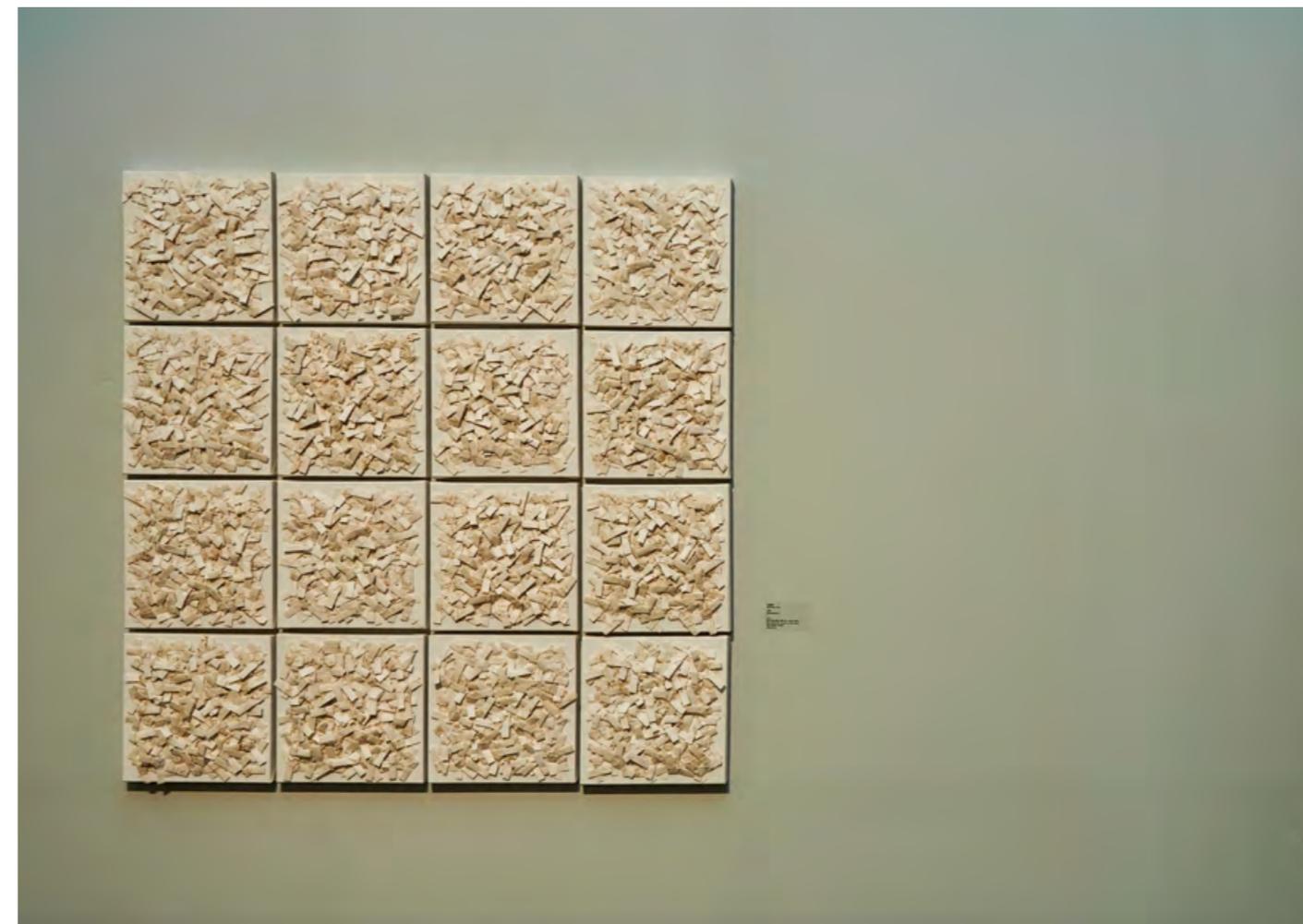
이현희

LEE Hyun-Hee



하얀 눈물
White Tears

2014
한지, 연필, 잉크, 명주실
Hanji paper, Pencil, Ink, Cotton Thread
350x1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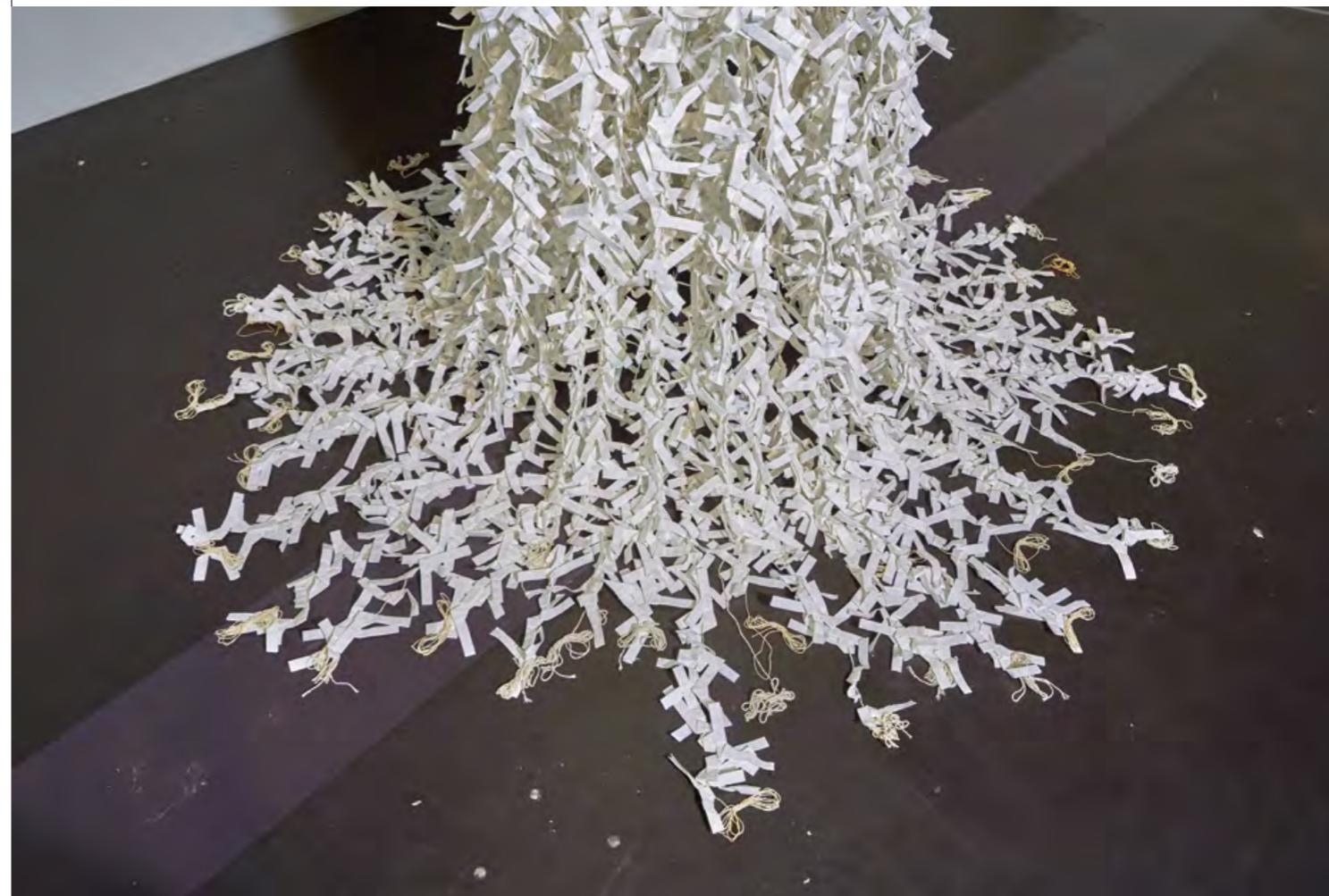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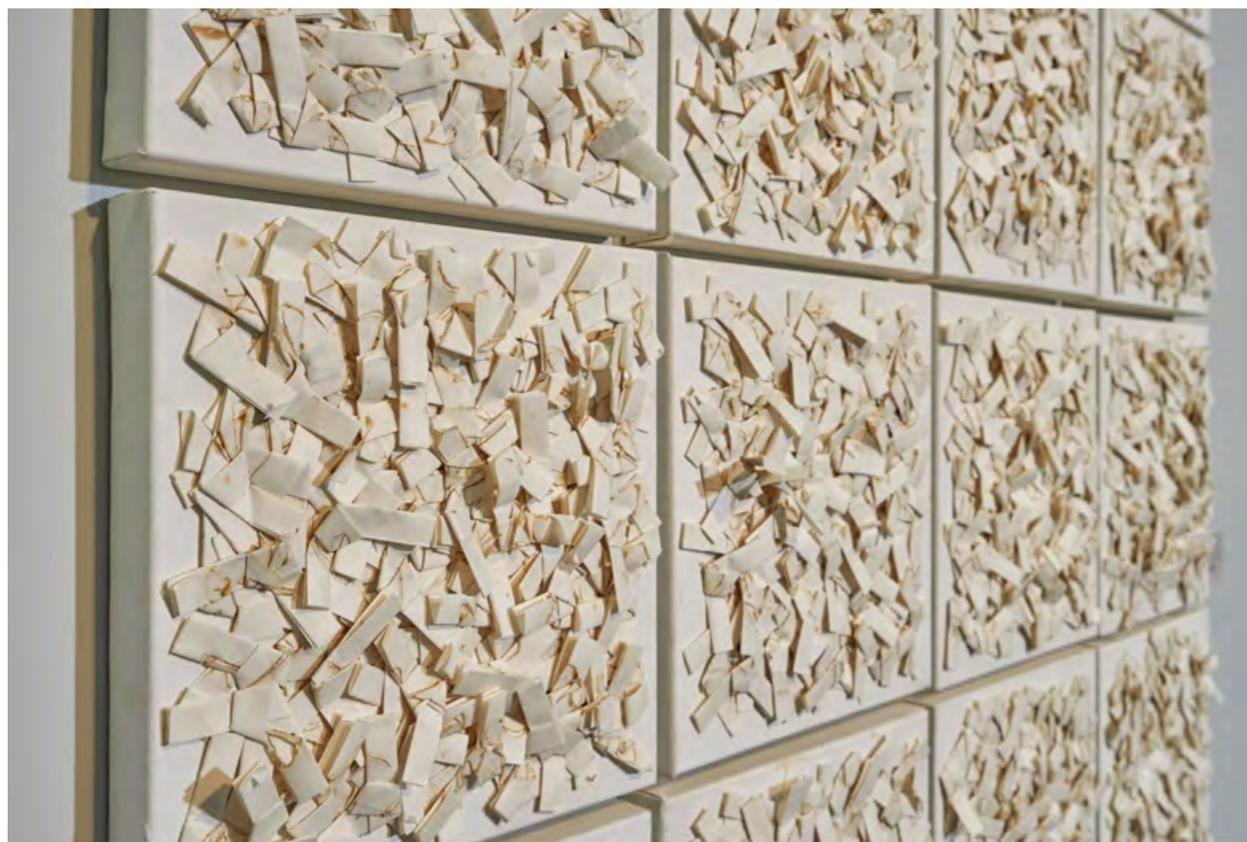


고백
Confessions

2014
한지 위에 연필과 태운 자국, 비단실, 캔버스
Pencil with Burn marks on Hanji paper,
Silk Thread, Canvas
124x124 cm

<고백>은 불교 신앙에 기반한 가족 의식에 대한 기억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이후 작가 이현희의 마음에 강하게 남아 있는 기억이다. 항상 새해 전날에 작가의 가족은 작년의 일들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을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접어 불에 태웠다. 이 의식을 재현하는 것은 작가에게 카타르시스적 과정으로 자기 가족과 문화에 감정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하얀 눈물>(설치 작업)은 이현희가 잊을 수 없는 매우 사적인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가족이 트라우마를 겪었던 밤에 눈이 많이 내린 것을 작가는 기억한다. 작가는 이 작업에서 마치 눈이 내리고 눈물이 흐르듯이 자신의 희망과 꿈이 떨어지는 것을 묘사한다. 그는 명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절에서 보냈던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 강력한 경험과 기도를 적은 절에 걸린 많은 종이에 대한 기억을 연결하고자 했다.



CONFESSIONS reveal memories of family rituals based on Buddhist beliefs linger strong in Hyun-Hee Lee's mind since migrating from Korea. Always on New Year Eve her family wrote their confessions from the past year on papers which were then folded and burnt. Recreating this ritual became cathartic for artist and created an emotional and spiritual connection to her family and culture.

WHITE TEARS (Installation Work) is derived from very personal memories which LEE has been unable to forget. After a family trauma she remember it was heavily snowing all night. The artist depicted her hopes and dreams as if they were falling like snow and her tears in this work. She created this work based on the experience of her time spent in the temple to alleviate her feelings of sadness through meditation and prayer. She wanted to connect to this powerful experience and the memories of the many paper prayers hanging in the temple.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축원
Invocation

2019
단체널 영상 Single channel video
2:58



<축원>은 제인 진 카이젠의 영상 설치 작품 <이별의 공동체>(2019)의 일부로, 퍼포먼스 비디오이다. <이별의 공동체>는 버려진 공주 바리에 대한 한국의 사면적 설화를 도입해 경계와 미학적 명상에 대한 색다른 접근을 추적한 작업이다. 바리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으나 이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자들의 신이자 영매가 되었다. 영상 <축원>은 작가가 태어난 곳이자 조상의 고향인 제주도의 화산체 오름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관점으로 촬영되었다. 영상은 작가가 끊임없이 회전하는 동작에 촬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이라는 기술적 장치에서 발생하는 힘이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처음에 작가는 클로즈업된 화면으로 나타난다. 이후 작가가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움직임의 원심력이 마치 드론을 공중으로 높이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드론이 높이 올라가면서 눈 덮인 화산 풍경 속에서 회전하는 사람이 점으로 보일 때까지 점차 멀어진다. 절대적인 존재와 신화적 시간 모두를 포함하는 시공간적인 응축은 무당 고순안의 축원을 담은 사운드를 통해 강조된다. <이별의 공동체>에서 한국의 다양한 디아스포라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후렴구를 형성하는 고순안의 곳은 김혜순과 이마라가 시를 낭송하는 소리와 함께 섞인다.



Invocation is a performative video that forms part of the film installation *Community of Parting* (2019) by Jane Jin Kaisen. *Community of Parting* traces a different approach to borders and aesthetic mediation by invoking the Korean shamanic myth of the Abandoned Princess Bari who was exiled at birth but who later becomes the goddess and mediator at the threshold of the living and the dead. The video *Invocation* is filmed from an aerial view inside an oreum, a volcanic cone, in Jeju Island, Korea, the ancestral home and birthplace of the artist. The video is created through a negotiation of forces between the embodied movement of the artist spinning and the technological device of the drone onto which the camera that captured the image, was mounted. At first she is seen close-up. Then the centrifugal force of her spinning movement catapults the drone into the air. As it gradually ascends, the spinning figure recedes until she becomes a mere dot in the snow patched volcanic landscape. A sense of spatial-temporal condensation, encapsulating both absolute presence and mythical time, is highlighted by the audio-scape composed of Shaman Koh Sun Ahn's invocation, whose ritual performances and chants form a refrain in *Community of Parting* alongside multiple voices of Korean and diasporic women, and poetic recitations by Kim Hyesoon and Mara Lee.

최성호

CHOI Sung Ho



모닝 캄

Morning Calm

1999, 2022
 현장설치 Site-specific installation
 외부지름 External Diameter 500cm
 내부지름 Internal Diameter 270cm
 높이 Height 60cm



작가가 붙인 작품제목 *<Morning Calm>*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의 별칭이다. 어디선가 명나라 황제가 조선을 가리켜 ‘차오시엔(청량한 아침이란 뜻)’이라고 부른 것이 이후 ‘모닝 캄’으로 굳어졌다는 설을 본 적이 있으나, 진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아무튼 한국을 가리켜 19세기까지는, 아니 한국전쟁이 있던 20세기 전반까지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일부라도 맞는 말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1950년 이후의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작품제목 *<Morning Calm>*은 일종의 반어법이다. 21세기 오늘날 한국의 역동적 움직임과 요란함을 작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백년 전의 별칭인 ‘모닝 캄’을 제목으로 하면서, 작품은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를 보여주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 수 있는 남북한의 지형이 물 위에 뜬 채 각각 바람따라 물결따라 떠다니고 있다. 국제적인 풍향에 따라, 대양의 해류에 따라 때론 서로 부딪치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는 양분된 한반도를 원거리적 시선으로 잡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뉴욕과 서울 사이의 거리 11,000Km를 오고가는 그 시선은 결코 안정됐거나 평화롭지 않다. 오히려 걱정과 불안의 시선이다. 휴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 그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더욱 각별한 이유이다.



세계일보 1999년 7월 30일 (금요일) [5]

뉴욕을 중심으로 각 공화국을 잇는 최성호 씨가 지난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애틀의 샌드 포인트에 위치한 구 해군 기지에서 이와 설치작업을 전시하고 있다.

'Sand Point Five Sites' 제목의 이 행사는 시애틀 아트 커뮤니티에서 주관하며 지난 19년 이 전에서 산출된 5명의 작가들에게 작품구상 및 제작권이 일체를 지원해 준

최성호 씨의 그의 설치작품 '2남 1남' 반듯같은 구조물 안에 북쪽이 놓여 있다 (GALLERY) 있다.

한민작가 최성호 씨 시애틀 구 해군기지서 설치작품전
냉전시대의 마지막으로 표류하는 한반도 표현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최성호 씨의 'Morning Calm'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시애틀 구 해군 기지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 작품은 2003년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주간 전시된다. 이 작품은 최성호 씨의 대표작으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분리를 상징하는 두 개의 지도가 물 위에 떠다니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최성호 씨는 이 작품을 통해 한반도에 지대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해 온 나라의 폐쇄적인 군사기지에서 지낸 나라의 문제 (분단상황)를 제시한 것.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최성호 씨의 'Morning Calm'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시애틀 구 해군 기지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 작품은 2003년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주간 전시된다. 이 작품은 최성호 씨의 대표작으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분리를 상징하는 두 개의 지도가 물 위에 떠다니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최성호 씨는 이 작품을 통해 한반도에 지대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해 온 나라의 폐쇄적인 군사기지에서 지낸 나라의 문제 (분단상황)를 제시한 것.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최성호 씨의 'Morning Calm'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시애틀 구 해군 기지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 작품은 2003년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주간 전시된다. 이 작품은 최성호 씨의 대표작으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분리를 상징하는 두 개의 지도가 물 위에 떠다니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The first project **Morning Calm**(1999) was a mixed media outdoor installation located at the area near the main gate of Sand Point former Naval Air Station, Seattle. It was a round pool surrounded by soil and sod forming unstiff slant. The two floating objects, which are in the shape of maps and covered with Irish moss, moving freely or unfreely on the surface of the water contained in the pool. The shape of the two maps is in the outline of the two Koreas which were divided after the Korean War. The mound shape of the installation was inspired by the shape and meaning of an ancient tomb of the Sylla Kingdom. The two maps on the surface of the pool are drifting as if the two wait to be matched along the DMZ lines to become one.

케이트 허스 리

kate-hers RHEE



예술가와 예술가의 책

The Artist and Her Books

2022
디지털 프린트 Digital Print
160,5×268×10cm

케이트 허스 리가 지속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사회적 조각 작업은 16세기 중반에 생겨나 유럽의 수집 활동을 보여주는 '호기심의 방'을 재해석한 것으로, 초국가적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적 접근을 통해 사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간 이주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 분더카머(Wunderkammern), 혹은 호기심의 방은 신비한 물건을 모아두던 곳으로 유럽에서 생겨났지만, 17~18세기에는 청나라와 조선에서도 점차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중국에서는 다보각(多宝阁), 한국에서는 문방도에 해당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자화상 사진 <예술가와 예술가의 책>, 색연필 드로잉 <수호자들>, 네온 사인 <이것은 책이 아니다>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작품으로 합쳐져 독특한 총체예술(Gesamtkunstwerk)을 형성하여 식민적 권력, 문화적 전유, 예술적 재발명이 뒤섞인 역사를 이야기 한다. 이번 작품은 또한 사회적 계층, 젠더적 역할, 지적인 야망에 대한 이야기로 작가가 처한 특정한 정체성의 위치에 주목하게 한다.



RHEE's ongoing interdisciplinary social sculpture rethinks the 'cabinet of curiosities' through transnational feminism and decolonializing approaches to imagine and empower through the practice of collecting and displaying objects, while looking critically at the transnational migration of collecting practices between Europe and Asia dating from the mid-16th century. Wunderkammern, or Cabinets of Curiosities, arose in Europe as repositories for wondrous objects but gradually appeared in 17th-18th century Qing China and Joseon Korea in the form of Chinese Duobaoge (多宝阁) and Korean Munbangdo (문방도). The self-portrait photograph, *The Artist and Her Books*, the colored pencil drawings, *The Guardians*, and the neon wall sign, *These are not books...* combine to form a unique Gesamtkunstwerk that tells entangled histories of colonial power, cultural appropriation, and artistic reinvention, drawing attention to her specific identity position, while remarking on social class, gender roles, and intellectual ambition.



일본에서 태어난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Cut My Hair, Born in Japan



당신의 얼굴을 빌려주세요
Lend Me Your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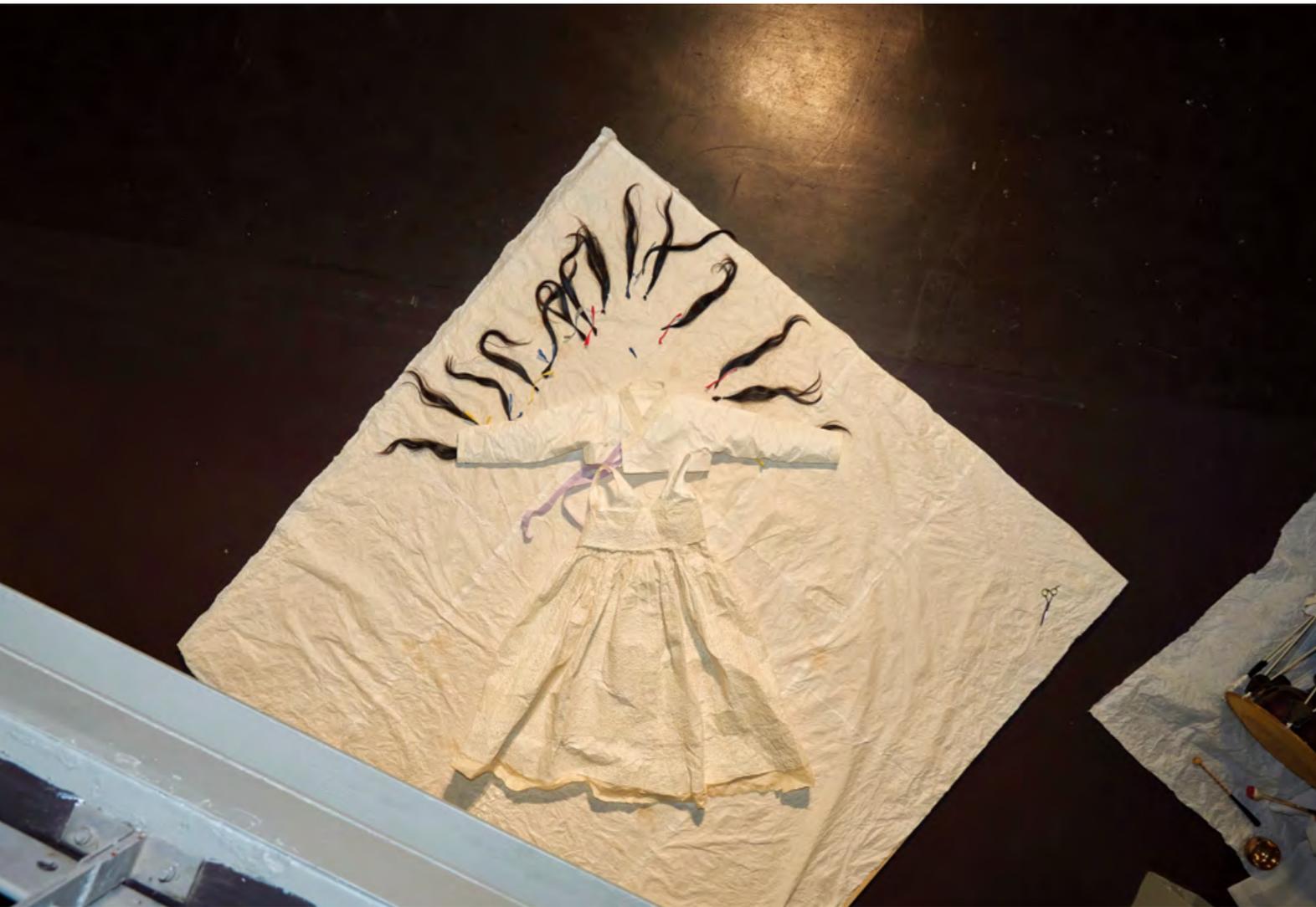
2017
일본화지에 잉크젯 프린트, 나무로 된 박스뚜껑
Inkjet print on Japanese paper, wooden box lid
각 10cm×10cm(each), 50ea

<당신의 얼굴을 빌려주세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적인 시각에 투영되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역설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작품 속 사진의 한쪽에는 여러 사람의 원래 얼굴을 또 다른 한쪽에는 원래 사람의 얼굴에 작가 자신의 눈만 심어 놓았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빌려 거기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재일교포인 작가가 일본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남의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행위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더니 그 대상자가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였다. 참여하는 관객들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느끼는지... 무방비한 상태로 누워 머리카락이 잘리는 동안 작가는 허공을 바라보며 외국으로 나간 교포들을 상상한다. 잘라진 작가의 머리카락은 외국에 이민간 교포들처럼 다른 곳에 '기부'되어 그 곳에서 새 생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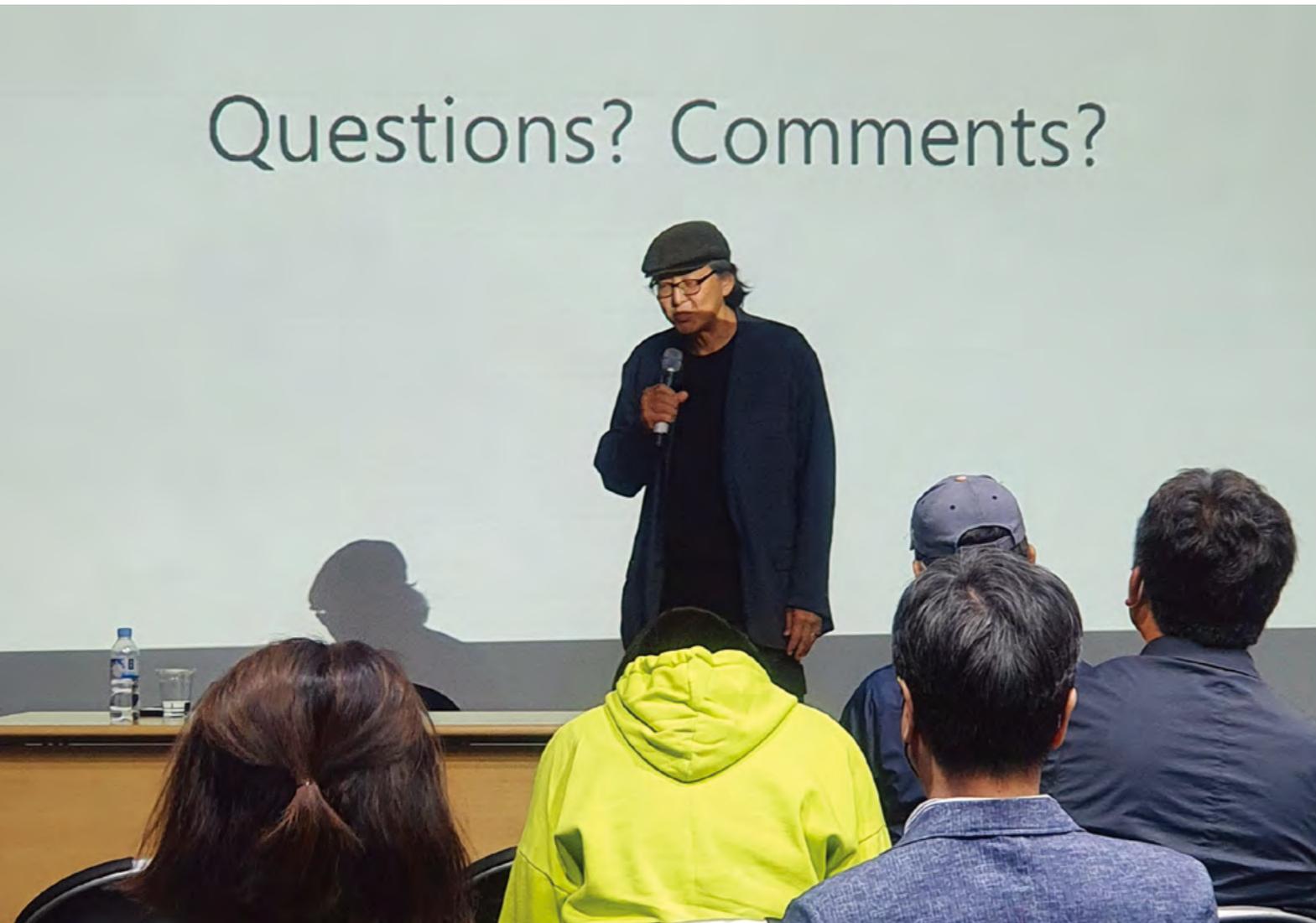
Lend Me Your Face

Through her work, Ha paradoxically interprets her own dualistic self as reflected in the unique individual views of various people. The original faces of diverse people are portrayed on one side of the photograph, while on the other side, the artist's eyes are superimposed upon the faces of others. As if to take root somewhere by borrowing other people's face, the work sees to express the reality of a Korean-Japanese artist living in Japan.

Cut My Hair, Born in Japan

It's quite an unusual experience to cut someone else's hair. The person whose hair is about to be cut is a Korean-Japanese, born in Japan. One wonders what the participating audience thinks about as they cut the artist's hair. Lying defenseless as her hair is being cut, the artist gazes out into empty space, imagining the overseas Koreans who left home. The artist's hair, cut and separated from her, will be 'donated' somewhere and come to have a new life there, like the overseas Koreans who immigrated to foreign countries.

Book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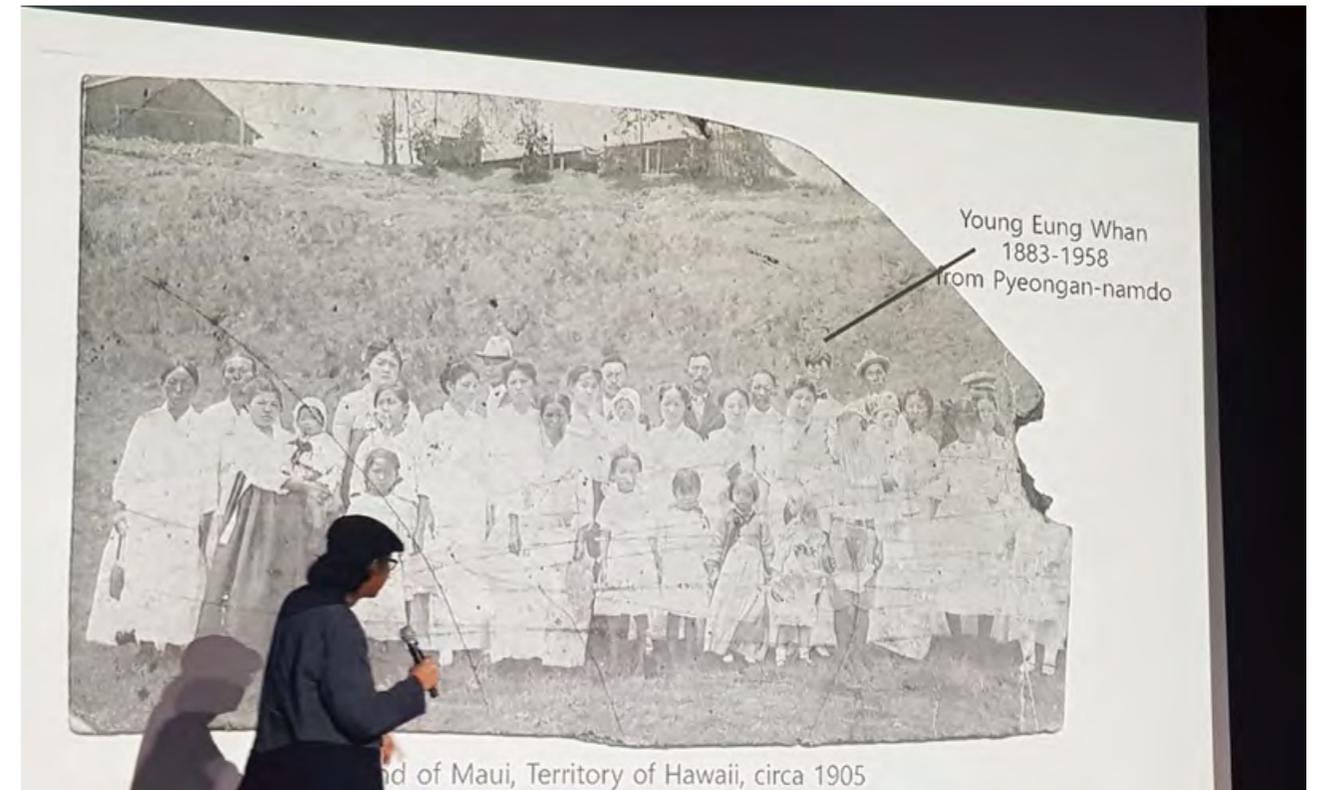


소설 『A Ricepaper Airplane』과 하와이 이민의 삶

초 청 강 연 : Gary Pak (하와이대학교 영문과 명예교수, 소설 『A Ricepaper Airplane』 저자)

사회 및 통역 : 부경숙 (서강대학교 인문대학 미국문화전공 교수)

일 시 : 2022년 10월 8일(토) 15:00 - 16:30



한국인 하와이 이민 3세로서, 소설 『A Ricepaper Airplane』의 저자이기도 한 게리 박(Gary Pak) 교수를 초대하여 소설과 함께 하와이 한인 이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게리 박교수는 최초로 하와이를 향해 이민선이 출발한 인천항을 의식해 특별히 이민 초기의 가족사진과 기록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관객의 질문에 친절히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작가와의 대화 Artist Talk

참 여 작 가 : 이현희, 최성호, 하전남

진 행 : 이태호 감독

일 시 : 2022년 10월 22일(토) 15:00 - 17:00





내 작품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반응이다. 따라서 매일 살면서 만나는 갖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국면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된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작품화되는 일이 많은데, 특이한 것으로는 떠나온 조국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내 작품의 한 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Morning Calm>도 그 중 하나다. 이 작품은 지난 1999년에 미 서부의 시애틀에 설치했던 작품이다. 한국전쟁과 함께 휴전협정에 의해 분단된 남북한의 모습이 휴전 후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냉전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이 괴이한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상기시키며 질문을 하는 작품이다. - 최성호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동포로서 현재에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살고 있다. 아직 말도 서툴고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나, 그 차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내 삶과 예술의 새로운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일기론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 종이는 그 재료와 제조 방식에 있어 비슷한 면이 많은데, 작품으로 전시된 한복은 안동의 '한지'와 일본의 '화지'로 치마 저고리를 만든 것이다.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 관객들을 '한지'와 '화지'를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정치, 경제, 군사적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거리도 실로 크다. 그럼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희노애락의 감정은 한국과 일본인이 다르지 않고, 전 인류도 모두 같다. 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 뿐인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미술활동을 하고자 한다. - 하전남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 현재 시드니에서 작업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일단 나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감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민 후 갑자기 변한 환경과 외로움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가졌다. 내 작업은 그런 갈등과 번민에서 만들어졌고, 동시에 그런 작업을 통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기도 했다. 고국을 떠나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데, 앞으로도 한국인-호주인-세계인이라는 문화적/인종적 정체성의 문제는 내 작품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 본다. - **이현희**

작가이력 Artists' Biography

갈라 포라스-김 Gala Porras-Kim

갈라 포라스-김(1984, 콜롬비아 보고타 생)은 동시대 다원예술 작가로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휘트니미술관, LA현대미술관, 해머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개한 바 있다. 그의 작업 다수는 시간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에 대해 다룬다. 작가는 언어나 역사의 재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다. 작가는 2019년 휘트니비엔날레, 2021년 광주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에 참여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LA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의 피바디 고고학·민족학 박물관의 연구자로 멕시코의 고고학적 현장에서 찾은 사물을 연구하였다. 또한, 게티센터 작가 레지던시에서는 “언어와 역사가 예술과 만나는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해 연구하였다.

Gala Porras-Kim (born 1984, Bogota, Colombia) is a contemporary interdisciplinary artist who lives and works in Los Angeles. Her work has been shown at the Whitney, LACMA, and the Hammer Museum. Much of her work deals with time, and the way the perception of objects changes over time. Gala uses a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that influences the representation of language and history to create art objects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She participated in the 2019 Whitney Biennial and 2021 Guangju and Sao Paulo biennales. Porras-Kim also curated a show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in October 2019. As a scholar at the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at Harvard University, Porras-Kim researched objects from archeological sites in Mexico. Her work as artist-in-residence at the Getty Center investigate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that influence how language and history intersect with art."

글렌 모리, 줄리 모리 Glenn Morey, Julie Morey

한국인 입양아 글렌 모리와 그의 아내이자 제작 파트너인 줄리 모리의 영화 프로젝트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사회정의영화제에서 최고의 단편다큐 영화상을 수상했고, 샌디에고 아시아인영화제, 보스톤 아시아계미국인 영화제, 덤보영화제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서울과 뉴욕에서 있었던 12 스크린 영상 설치로 소개하였으며, 2020년에는 오더블 오리지널 스에서도 상영되었다. 글렌 부부의 작업은 NPR 방송사의 모닝에디션과 조선일보,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 SBS 뉴스, JTBC 뉴스, 포브스, 사이콜로지 투데이 등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다. 글렌 모리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이 됐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글렌과 줄리 모리는 콜로라도, 덴버에 거주하며 상업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The Side by Side Project was created by Korean adoptee, Glenn Morey, and his wife and filmmaking partner, Julie Morey. Side by Side was awarded Best Short Doc at the Social Justice Film Festival, and was an Official Selection of the San Diego Asian, Boston Asian American, and Dumbo film festivals. In 2019, it was adapted as a 12-screen video art installation with runs in Seoul and New York City, and in 2020 it was released as an Audible Original. Glenn has been featured on NPR's Morning Edition and All Things Considered, as well as The Chosun Ilbo, Korea Herald, Korea Times, SBS News, JTBC News, Forbes, Psychology Today, and others. He was born in Seoul in 1960 and adopted to the U.S. at the age of 6 months. Glenn and Julie live in Denver, Colorado, and are longtime commercial and documentary filmmakers.

김수자 Kimsooja

김수자(1957-)는 1980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갤러리현대(서울)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미국을 주 무대삼아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한 국가를 오가며 1989년 온갤러리(오사카, 일본), 2000년 ICC(도쿄, 일본), 2001년 MoMA(뉴욕, 미국), 2015년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빌바오, 스페인),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작품 활동을 펼쳤다. 1991년 송은미술대상, 1992년 석남미술상, 2015년 호암미술상, 2017년 김세중 조각상 등을 수상했으며, 2005년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그의 작품이 3개월 동안 상영되기도 했다.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되었다.

김수자 Kimsooja, 2015년

김수자 Kimsooja, 2015년

김희주 KIM Heejoo

김희주 Kim Heejoo, 2015년

김희주는 실험 영화 및 복합 매체 영화감독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이며 에듀케이터로 활동한다. 현재는 실험적 서사 영화 구조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차별, 페미니즘, 노인 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쟁점에 주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희주의 영화와 설치 작품은 세계 곳곳의 여러 영화제와 갤러리에서 소개되었으며, 국제 영화제와 컨퍼런스에서 최고 실험영화상, 최고 프로그램 상을 다수 수상했다. 여러 국제 미디어 아트페스티벌, 컨퍼런스, 전시 등에서 디렉터, 큐레이터,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김희주는 현재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희주 Kim Heejoo, 2015년

다프네 난 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nt

다프네 난 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nt, 2015년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난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파리에서 거주하면서 지형학적 경계와 잠재적 내부 분열을 참조하여 분리 또는 분열 개념에 대한 예술적,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작가는 미학 및 예술학 박사로, 현재 파리 8 대학교 의 사진학과 조교수이자 AIAC(Art of Images and Contemporary Art)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저서로 2009년에 출간된 『중추적 이미지 혹은 눈의 해석 (The Pivotal-Image or an Eye’s account)』이 있다. 르 세르장의 작업은 세계 여러 갤러리와 예술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작가의 이론적 연구 또한 공저를 포함한 여러 저서를 통해 출간되고 있다.

Kimsooja (b. 1957) received her BFA and MFA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in 1980 and in 1985 respectively. Starting with her solo exhibition at Gallery Hyundai (Seoul, Korea) in 1988, Kim mainly showed her works in the US from 1990s, as well as expanding globally and showing in countries like Japan, Canada, Italy and Germany, etc. Kim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On Gallery (Osaka, Japan) in 1989, ICC (Tokyo, Japan) in 2000, MoMA (New York, US) in 2001, Bilbao Guggenheim (Bilbao, Spain) in 2015, a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in 2016. She was the recipient of SongEun Art Award in 1991, Seoknam Art Award in 1992, Hoam Art Award in 2015, and Kim Se-choong Sculpture Award in 2017. Kim’s work was presented on the Astrovision sign in Times Square, New York for 3 months in 2015. Kim represented the Korean Pavillion at 2013 Venice Biennale.

김수자 Kimsooja, 2015년

Heejoo Kim works as an experimental mixed media filmmaker, new media artist, and educator currently creating projects focusing on social issues, such as microaggressions, feminism, elder abuse, etc. in experimental narrative film structures. Her films and installations have been internationally presented at festivals and galleries and have received awards including Best Experimental Film, and Best of Show at sever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conferences. She had been a director, a curator, a judge, and an adjudicator for International Media Art festivals, conferences, and shows. Currently she is teaching a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김희주 Kim Heejoo, 2015년

민영순 MIN Yong Soon

민영순 Min Yong Soon, 2015년

Yong Soon Min considers herself a cold war baby born in Bugok near Suwon the year the Korean War ended. Min became Asian Pacific/ Korean American in New York City during the 80s where she cut her political teeth on the interplay of identities within colonial and diasporic histories. Min receive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Visual Artist Award in New Genre; Guggenheim Foundation Bellagio residency; Anonymous Was a Woman Grant; Korea Foundation Grant; COLA Individual Artist Fellowship from the City of Los Angeles Cultural Affairs Department; and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 Min served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Asian American Arts Alliance, national Board of Directors of CAA, and Korean American Museum. She currently serves on Artists Board of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CA LA) and the steering committee of GYOPO. She is Professor Emerita at UC Irvine, with MFA from UC Berkeley, followed by a postdoc at Whitney Museum’s Independent Study Program.

민영순 Min Yong Soon, 2015년

백남준 Nam June Paik

백남준은 1932년 서울시 종로구에서 태어나 자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했고 1952년 도쿄대학교 문과부에 입학해 미술사학 및 미학을 전공하고 전위음악가 '아르놀트 쉐베르크 연구'를 졸업 논문으로 썼다. 1956년 졸업과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나 쉐베르크 이후 현대음악의 실험이 활발하던 다름슈타트로 가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전위음악가 존 케이지를 만나 교류한다. 1960년 즈음, 다다이즘의 정신을 잇는 '목적 없는 자유, 실험을 위한 실험'을 이어갔고 요셉 보이스 등과 함께 플럭서스 활동에 참여한다. 이즈음 작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악기를 부수는 파격적 행위예술과 머리와 몸에 잉크를 바르고 흰색 천이나 캔버스 위에서 그 자취를 남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한편 점차 전자공학과 TV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63년에는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이란 제목으로 13대의 TV를 사용한 최초의 '비디오아트'를 선보였다. 1964년 이후에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첼로 연주자이자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의 기획자였던 샬롯 무어맨과 함께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 <TV첼로> 등 미디어 테크놀러지와 퍼포먼스가 결합한 파격적인 예술의 실험으로 뉴욕 예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비디오아트를 새로운 설치미술로 변환하여 전시한다. <달은 가장 오래된 TV이다>, <TV 붓다> 같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뉴욕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의 새로운 예술을 알렸고 1982년 뉴욕 휘트니미술관에서 가진 <백남준 회고전>은 그의 예술 세계를 세계에 알리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

백남준의 작품, 1965년

윤진미 YOON Jin-me

윤진미의 작품, 1990년

한국 태생의 윤진미는 밴쿠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작가는 1990년대 초부터, 렌즈를 기반으로하는 작업을 통해 직접 겪은 경험을 역사와 연결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자신'과 '타자'의 구축에 대한 비평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윤진미의작업은 고정 관념과 지배적인 담론을 분석하면서 젠더와 성, 문화와 민족, 시민권과 국민성의 문제를 다룬다. 지난 30년 동안 작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초국가주의 맥락 안에서 특정 장소에 뒤섞여 존재하는 지역적(로컬)이면서도 글로벌한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를 보여주었다. 윤진미의 작품은 수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캐나다를 비롯하여 국제 미술 기관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캐나다 현대 사진 예술의 탁월성을 보여준 것으로 인정받으며 2022년 스코샤뱅크 사진상을 수상했다.

Nam June Paik was born in Jongno-gu, Seoul, in 1932, where he grew up. His family moved to Japan just before Korean War broke out. Paik enrolled in Department of Liberal Arts at Tokyo University in 1952, where he majored in Art History and Aesthetics and graduated with a thesis on Arnold Schoenberg's serialism. Upon graduating in 1956, Paik went to study in Germany, and headed to Darmstadt where proactive experimentation of contemporary music was happening. There, he met John Cage, the most prominent avant garde musician at the time. In 1960s, Paik became involved in Fluxus activities with artists like Joseph Beuys, continuing on with “aimless freedom and experimentation for the sake of experimentation,‟ carrying on the spirit of Dadaism. Around this time, Paik showed unconventional and sensational acts of art like shattering instruments such as the piano and violin, and gave performances where he would put ink on his body and hair and leave traces of himself on white cloth or canvas. Paik gradually began to show interest in electronic engineering and media art using TV. In 1963, he showed the very first “video art‟ using 13 TVs in the exhibition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V at the Parnass Gallery in Wuppertal, Germany in 1963. Paik worked briefly in Japan and then mainly in US after 1964, where he started working with Charlotte Moorman, a cellist and advocate for avant-garde music. Together, they began to show unprecedented artistic practices combining media technology and performance for which they drew attention of the New York art scene, culminating in works like TV Bra for Living Sculpture and TV-Cello. In 1970s, Paik converted video art into a new form of installation art. Presenting works like Moon is the Oldest TV and TV Buddha, major art institutions not only in New York but around the world began inviting Paik to show his works. Paik’s retrospective exhibition held at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in New York in 1982 served as a clear opportunity through which to introduce Paik’s works to the world.

백남준의 작품, 1965년

이가경 LEE Kakyoung

이가경의 작품, 2017년

Born in South Korea, Kakyoung Lee (she/her) is a Brooklyn-based artist with a background in printmaking. Her practice spans printmaking, animation, video, and installation. Interdisciplinary engagement with print and time-based work is central to her research and studio practice. Lee holds her BFA and MFA in printmaking from Hong-Ik University, as well as an MFA from SUNY-Purchase College, NY. She has exhibited in numerous exhibitions internationally and her works have been featured and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many museums. She was the 2017 recipient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 Purchase Award. Her animation Burning Island is on view in the permanent collection exhibition at the Jeju 4.3 Memorial in Jeju, South Korea.

이가경의 작품, 2017년

이가경의 작품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제인 진 카이젠(1980, 제주 생, 코펜하겐 거주)은 시각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이며 왕립덴마크예술학교의 미디어아트 학부의 교수이다. 영상 설치, 서사 실험 영화, 사진 설치, 퍼포먼스, 텍스트 등의 매체를 아우르는 카이젠의 예술 활동은 여러 커뮤니티에 대한 폭넓은 다매체적 연구와 참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작가는 또한 시각적으로 강력하며, 다층적이고, 수행적이며, 시적인 동시에 다성적인 페미니즘 작업을 진행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기억, 이주, 경계, 번역과 같은 주제를 통해 카이젠은 직접 경험한 것과 체화한 지식이 거대한 정치적 역사와 교차되는 지점을 활성화한다. 카이젠의 작업은 재현, 저항, 화해의 수단들을 교섭하고 매개하여 대안적인 계보가 형성되고 집단의 출현이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낸다.

최성호 CHOI Sung Ho

서울에서 태어난 최성호는 1981년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의 베겐 카운티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그는 1980년 홍익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1984년 뉴욕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업은 지난 40년간 북미, 중미 지역과 아시아의 여러 기관에서 소개 되었다. 최성호는 두 문화를 오가는 (bi-cultural) 작가로, 다수 안에 존재하는 소수자의 복잡성과 대조적 측면을 즉 '타자'가 되는 경험을 묘사해 왔다. 창작자로서의 노력 외에, 최성호는 1988년부터 뉴욕시와 베르겐 카운티의 다양한 공동체안에서 예술 교육가이자 데이터 수집가로 쉬지 않고 활동해왔다. 1990년에는 서로한국문화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했으며 1993년 퀸즈미술관에서 있었던 순회전 <태평양 건너: 동시대 한국 미술과 한국계 미국 미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기획, 조직하였다.

케이트 허스 리 kate-hers RHEE

한국에서 태어난 사회 활동 예술가 케이트-허스 리(이미래/李未來)의 인종을 초월한 삶의 경험은 그가 미국, 한국, 독일 등 여러 도시에서 작업하도록 이끌었다. 각 국가와 도시에서 작가는 외국어, 코드 전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배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작업에 반영하였다. 작가는 초국가적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적 개입, 참여적 퍼포먼스, 드로잉, 설치 및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복잡한 총체예술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자전적 서사를 풀어내고자 한다. 작가는 2022년 재미한국예술재단상(KAFA)을 수상하였고, 2022년 가을에는 아시아 미술관(Museum für Asiatische Kunst)의 레지던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뉴저지 럿거스대학교의 폴롭슨갤러리(2022),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2023), 베를린 훔볼트포럼의 아시아미술관(2024)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Jane Jin Kaisen (born 1980 in Jeju Island, lives in Copenhagen) is a visual artist, filmmaker, and Professor of the School of Media Arts,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Spanning the mediums of video installation, narrative experimental film, photographic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text, Kaisen’s artistic practice is informed by extens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ngagement with diverse communities. She is known for her visually striking, multilayered, performative, poetic, and multi-voiced feminist works through which past and present are brought into relation. Engaging topics such as memory, migration, borders, and translation, she activates the field where lived experience and embodied knowledge intersect with larger political histories. Her works negotiate and mediate the means of representation, resistance, and reconciliation, thus forming alternative genealogies and sites of collective emergence.

Born in Seoul, Korea, Sung Ho Choi has lived and worked in New York City and Bergen County of New Jersey since 1981. He completed BFA at Hong IK University in Seoul in 1980 and received MFA from Pratt Institute, New York in 1984. Over 40 years, His works have been shown at the many exhibitions in the northern and central America and Asia. As a bi-cultural artists, Choi has depicted the experience of being the “other,” of contrasts and complexities of a minority existing within a majority. Beyond his creative endeavor, he has restlessly worked as a cultural activist, an art educator and data collector in New York City and the various communities of Bergen County since 1988. He co-founded Seoro Korean Cultural Network in 1990 and organized many cultural events including the traveling exhibition, Across the Pacific: Contemporary Korean and Korean American Art at Queens Museum of Art, NY in 1993.

South Korean born social practice artist (이미래/李未來) kate-hers RHEE’s transracial life experiences led her to 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Germany, where learning foreign languages, code-switching, and cultural traditions and customs continuously inform her artwork. Through the lens of transnational feminism, RHEE creates complex Gesamtkunstwerke (total-works-of-art) that tell autoethnographical narratives, incorporating social intervention, participatory performance, drawings, installation and new technologies. As the 2022 Awardee of the 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 (KAFA) and Fall 2022 Artist-in-Residence at the Museum für Asiatische Kunst, the artist is preparing for several solo exhibitions, including at the Paul Robeson Galleries at Rutgers University, Newark, NJ (2022), the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2023), and the Museum für Asiatische Kunst, Humboldt Forum, Berlin (2024).

하전남 HA Jhonnam

하전남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3세로 2017년 한국으로 '시집오게' 되었다. 201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안동 한지 공방을 방문한 후 할아버지가 사셨던 한국의 본적지(경북 의성군)를 찾아갔다. 그 장소에 감격해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날이 증조할아버지 제사날이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가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운명적인 생각에 본적지와 가까운 안동 한지를 고향의 한지로 삼게되었다. 현재는 한국의 안동한지, 원주한지와 일본의 고향(omachi)에서 만든 ”마쯔사키화지”를 결합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 주요전시로는 바깥미술회(2019,2020,2021), 2021 Sado Island Galaxy Art Festival(일본), Shinano Primitive Sense Art Festival(2015-2022 일본), ART DMZ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예술가들(2019,2020,2022), 경남도립미술관특별 기획 Diaspora 世紀를 넘어(2017), 자이니치 3.0(2013광주), 우리 또 다른 우리 (2006 국민대학교미술관), 아름전—재일KOREAN미술전(1999,2002일본), Neo-Vessole Areum04-05(2004-2005교토-서울-뉴욕) 등이 있다.

Ha Jhonnam was born in Japan as a third-generation Korean-Japanese. She was then ‘given away in marriage to her husband’s home’ in Korea in 2017. In June 2018, after visiting a Hanji studio in Andong through an acquaintance, she visited her grandfather’s domicile of origin in Euisung-gun, Gyeongbuk. Deeply moved by the place, Ha called her parents in Japan, and found out that day was the day when the ancestral rite commemorating the death of her great-grandfather was to be held. Convinced that her great-grandfather led her there, the artist felt that it was a fateful encounter, and began to consider Hanji paper from Andong, which is close to the domicile of origin, as her medium from home. Currently, Ha’s work combines Andong Hanji, Wonju Hanji, and Matsusaki paper made in Omachi. Ha’s major exhibitions include Baggat Art (2019,2020,2021), 2021 Sado Island Galaxy Art Festival (Japan), Shinano Primitive Sense Art Festival (2015-2022, Japan), ART DMZ Artists Opening up Peace and Unification (2019, 2020, 2022), Gyeongnam Art Museum Special Exhibition Diaspora, Beyond the Century (2017), Zainichi 3.0 (2013 Gwangju), Us, Another Us (2006 Kookmin University Museum), Areum—Korean Japanes Art (1999,2002 Japan), and Neo-Vessole Areum04-05 (2004-2005 Kyoto-Seoul-New York), etc.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